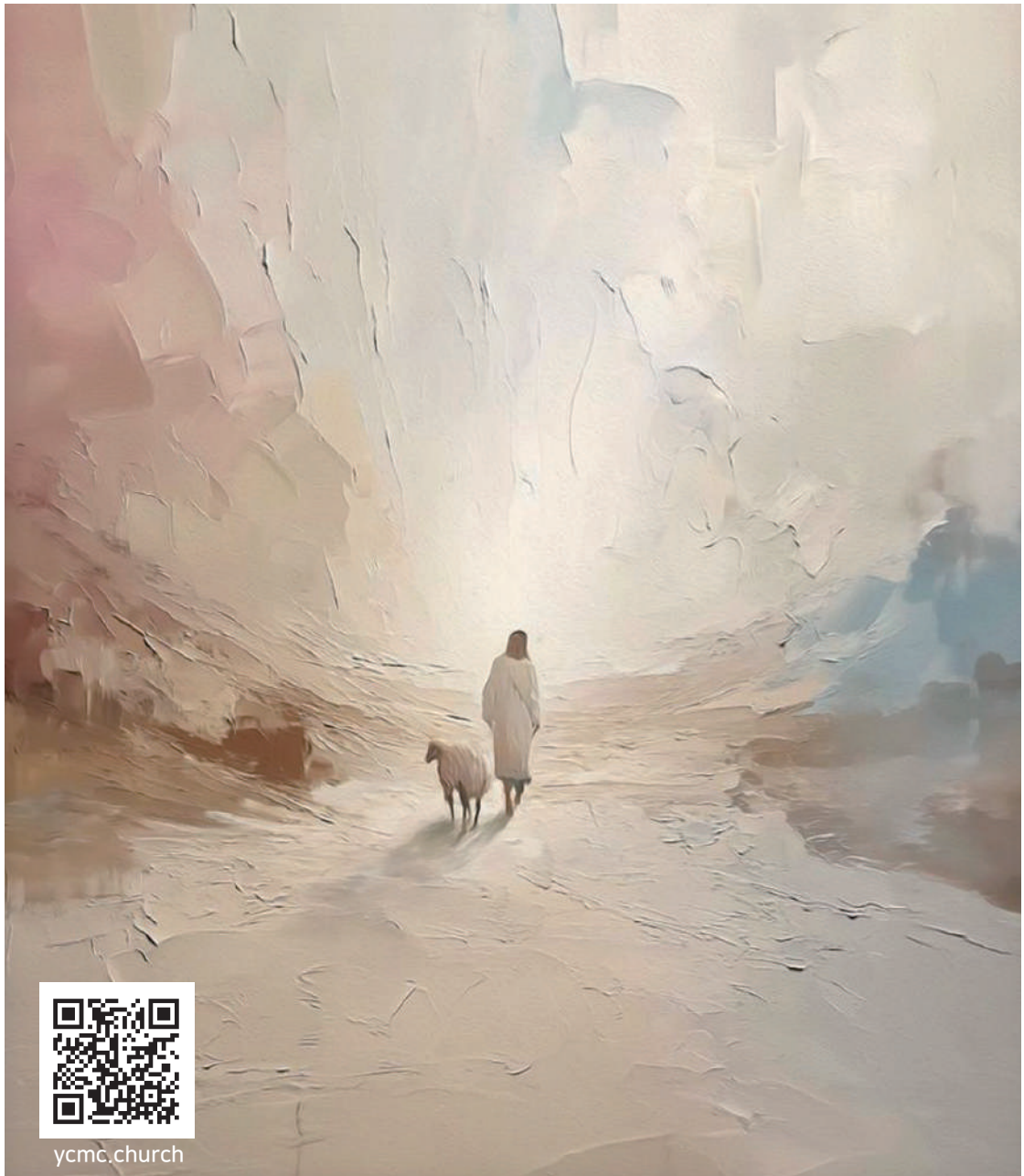

2025 vol.107 하반기

영중소식

Yeongdeungpo JoongAng Magazine



ycmc.church

2025 하반기 CONTENTS

은혜의 강단

04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최태수** 목사

평신도 칼럼

08 나들이길 **김행선** 권사

맛나는 교회

10 「맛나는 교회」 공개방송

11 탕자를 찾아 주신 하나님 **임종무** 원로장로

성화 이야기

12 최후의 만찬 **이현민** 청년

전도 축제

14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 **최태수** 목사

15 두 배 부흥 전도 축제를 준비하며 **김성중** 목사

17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김경미** 권사

18 부흥회, '다섯 가지 기도 제목'을 기억하며... **박은영** 권사

발행처 영등포중앙교회
0722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 163
TEL. 02)2631-5721~2 FAX. 02)2631-5725
발행인 최태수
편집인 조영주 신승민
편집위원 김성일 김선정 김성희b 권지선 박은정 오세빛
발행일 2025. 11. 9



The second half of 2025



궁금해요

20 MBTI? 나와 다른 성격 이해하기!

〈특집〉케냐 선교

24 '케미스트리'의 9박11일 박은정 전도사
26 내려놓음의 시간, 사랑 안에서 유현지 청년
30 《나마야니》를 읽고,
탄자니아 땅을 밟으며 이수정 청년

양육프로그램 소감

34 성도의 삶 권영근 성도
35 자녀양육 박미정 집사

목회자 칼럼

36 교회력, 시간 속에 숨은 복음 신승민 목사

영증유치원 소식

38 가족과 함께 하는 영증유치원

청장년 소식

42 청장년 모임 'Special Day'
43 '스페셜 데이를 함께하며...' 김인규 집사
44 '함께여서 더 특별했던 시간'
박은택·최선아 성도

교회학교 소식

46 영아부
47 유치부
50 유년부
53 초등부
56 청소년부
59 젊은이교회

영증게시판

교우소식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¹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²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엨 1:1-2

담임목사 최 태 수

- 감리교신학대학교 졸업
- South East Graduate Association for Theology 선교학석사
- 미국 United Theological Seminary 선교학박사
- 필리핀 선교사
- 남서울대학교 교수, 교목
- 해성교회 담임목사
- 강남지방 감리사
- 현/영등포중앙교회 담임목사

사도 바울은 11년 동안 3차례에 걸쳐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를 양육했습니다. 그중에서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있을 때 기록된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바울은 몸도 좋지 않은데,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을까요? 바울이 에베소교회에 편지를 써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시 에베소는 로마 시대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로마 시대 3대 도시를 말하면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그리고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는 항구 도시로 다양한 문화와 언어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배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폭풍과 풍랑 같은 재난의 위험을 늘 느끼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을 지

켜줄 신이 필요했고 이런 이유로 에베소에는 온갖 종류의 신들이 있었습니다. 튀르키예 박물관에 가면 당시 에베소 사람들이 믿었던 다양한 신들의 형상이 많이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당시 에베소에는 여러 신들의 형상을 파는 상점이 다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곳에 가서 자기 필요에 따라 신들을 선택합니다. 마치 베스킨라빈스에서 원하는 맛의 아이스크림을 골라 먹듯이 말입니다. 풍랑이 자주 일어나는 계절에 배를 타고 장거리 여행을 하게 되면 신상을 파는 상점에 가서 폭풍의 신을 삽니다. 아이를 낳기 원하는 사람은 아이 낳는 신의 형상을 삽니다. 어떤 사람은 네모난 신상을 사면 돈을 잘 벌 수 있다고 해서 샀는데, 다른 친구가 “나는 세모난 신상을 사고 나서 장사가 잘돼서 돈 많이 벌었다”라고 하자 당장 가지고 있는 네모난 신상을 버리고 세모난

“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죄 속에 있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값으로 주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

신앙을 구입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당시 에베소 사람들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신들을 선택해서 그 신을 섬겼습니다. 이런 종교적 문화가 당시 에베소의 문화입니다. 그러다 보니 에베소 교회와 교인들 사이에도 이러한 정서가 만연해 있었고, 바울은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편지를 쓴 것입니다.

바울은 편지 첫머리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인사말을 씁니다. 이 인사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이라는 말을 통해 자신이 사도가 된 이유는 자신이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선택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을 갈 때 예수님이 바울을 직접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이방의 사도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울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렇듯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한 겁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 사람들은 자기의 필요에 따라 필요한 신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선택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이라고 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선택했다는 이 내용은 바울 신학에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개념임

니다. 바울 서신을 읽어 보면 은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바울은 틈만 나면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로마 시대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노예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19세기까지 유럽과 아메리카에 노예제도가 있었는데 브라질에 ‘번식 노예’라는 뜻의 ‘파타세키’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힘이 센 남자, 아이를 잘 낳는 여자를 번식 노예로 씁니다. 남자 파타세키는 평균 200명의 자식을 낳고 여자는 평균 20-25명의 자식을 낳습니다. 여자가 20명의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임신이 가능한 나이 동안 평생 임신만 하고 사는 겁니다. 인간으로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시대 노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주인이 아끼는 화병을 노예가 실수로 깨뜨리면, 주인이 기분 나쁘다고 노예를 죽여버려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 노예는 물건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노예시장에서 노예를 사면 노예 어깨에 자신의 노예라는 표시로 주인집의 문양을 새긴 인두로 문신을 새깁니다. 제가 이번에 케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자신을 마사이족이라고 소개하는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제가 “내가 당신이 마사이족 인걸 어떻게 아느냐?”라고 물어보니, 자기 뺨을 가리키며 보라고 합니다. 얼굴을 자세히 보니 볼에 ‘V’ 자국이 있습니다. 마사이족은 6살에서 8살이 됐을 때 마사이 표시를 얼굴에 새긴다고 합니다. 모든 마사이족은 얼굴에 마사이 자국이 있습니다. 물론 이들은 스스로 명예롭게 자국을 내겠지만, 로마 시대의 노예들은 선택의 권한 없이 어깨에 노예 자국을 새겼던 겁니다.

어느 날 한 노예가 도망을 갔다고 가정해봅시다. 도망간 노예들이 도망간 첫날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자기 어깨에 있는 노예 문신을 지우는 겁니다. 시냇가에 가서 돌을 집어 돌로 자기 살을 깎아 냅니다. 이 노예 자국을 없애지 못하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도망간 노예들만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도망간 노예를 잡으면 그 얼굴에 ‘F’ 또는 ‘FUG’ (Fugitivus)라는 글자를 새깁니다. ‘도망친 노예’라는 글자입니다. 잡힌 노예는 죽도록 매를 맞은 다음 다시 노예시장에 나갑니다. 그런데 얼굴에 도망친 노예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팔리지도 않고 평생 매를 맞으며 닭장 같은 곳에서 살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도망간 노예를 돈을 주고 삽니다. 그리고 그 노예에게 “너는 자유다. 내가 너의 값을 다 지불했다. 너는 이제부터 자유의 몸이다.”라고 말합니다. 노예가 물어봅니다. “왜 많은 노예 중에서 하필이면 나를 선택해서 이렇게 자유를 줍니까?” 도망친 노예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주신 것, 이게 바로 은혜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죄 속에 있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값으로 주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왜 나를 선택하셨습니까?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은혜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은혜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울은 은혜받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서 ‘과’라는 단어는 중요합니다. ‘과’로 번역된 헬라어는 ‘카이’라는 단어이고 ‘카이’는 헬라어

로 ‘곧’이라는 뜻입니다. 이 문장을 원어적으로 다시 번역하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에 있는 성도와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성도는 같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육신은 비록 음란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에베소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영으로 육을 이기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메시지는 참 중요한 말입니다. 성도는 어디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들의 삶의 현장도 당시 에베소 도시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권모술수가 판치고, 죄악이 가득하고 음란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세상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혼탁한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지켜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의 모습으로 살고 교회에서는 거룩한 모습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 속에서도 구별된 삶, 다시 말해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두울수록 작은 불빛은 더 빛납니다.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십시오. 타협하지 말고 세상에 물들지 말고 음란함과 거짓의 속임에 물들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 진짜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 안에 신실하게 살면 바울은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임한다고 말합니다. 예수 안에서 신실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씀입니다. 평화, 평강, 화평 다 같은 단어로 히브리 말로 ‘샬롬’인데, 이 샬롬의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

성도는 세상 속에서도 구별된 삶,
다시 말해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혹시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져야지만 평안이 오고 그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져야지만 그때 평안할 수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사업이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돼야 비로소 평안을 얻으십니까? 이러한 것들은 그저 세상이 주는 평안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내 기도 제목이 거절당하고, 갈등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살롬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바로 살롬입니다. 이 살롬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길 축복합니다.

요즘 20-30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20, 30대를 잡지 못하면 유럽교회처럼 건물만 남는 교회로 남을지 모릅니다. 왜 그들이 교회를 떠날까요? 그들은 교회를 다니면 너무 손해 보는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남을 밟고 올라가야 하고, 때로는 편법도 써야 하고, 적당히 속이기도 해야 하는데, 교회는 정직하라고 하고, 양보하라고 하고, 나누라고 하며, 사랑하라고 가르치니 교회를 다니면 항상 손해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 안 다니려고 합니다. 젊은 이들의 이런 생각이 사회 현상 같지만, 사실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 한복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헬라이 단어는 디아볼로스입니다. 그 뜻은 ‘거짓말하다’, ‘속이다’, ‘이간질하다’, ‘근거 없는 말로 중상모략하다’라는 뜻입니다. 사탄은 거짓말로 우리의 가치관을 흔들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듭니다. 이게 다 영적 전쟁입니다. 그 영적 전쟁에서 넘어지니까 교회를 떠나고, 마음이 불안해

지고, 행복하지 않고, 걱정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굉장히 힘들고 괴롭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로 살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고 사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이기적이고 음란하고 욕심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거기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실하게 사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신실하게 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바로 살롬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평화인 살롬을 그의 자녀들에게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게 될지, 어떤 말을 듣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살롬이 임하면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당해도 내가 처참한 말을 듣게 되어도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진정한 살롬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이런 살롬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길 축원합니다.

나들이 길



김 행 선 권사
(제6여선, 래미안2숙)

주일예배를 마친 우리 여선교회 회원들은
봉고차에 몸을 싣고 자유로를 따라 신나게 달려갔다

파주의 고깃집,
푸짐히 차려진 한우 숯불 갈비살
입안 가득, 유난히 부드러운 고기를 맛갈나게 먹고
구수한 된장찌개로 속을 달래며 웃음꽃 피어났다

이제는 아픈 다리들을 이끌고
마장호수, 데크로 이어지는 둘레길을 걷는다
고요한 물결, 바람이 쉬어가는 곳
물빛은 하늘을 품고, 구름을 따라 살랑이며 흔들리고

햇살 아래 금빛으로 반짝이는 호수
늘어진 나뭇가지들은 심연을 들여다보듯
호숫가에 조용히 머물고 있다

호수를 가로지르는
출렁다리 위에 선 나는
그 흔들림에 온몸을 맡긴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마음의 무거운 짐조차 살며시 흔들리며 가벼워진다

출렁이는 건 다리만이 아니다
가슴 속 오래된 응어리들,
잊고 있던 꿈 하나
욕망의 불씨 하나도 꿈틀댄다

카페에 들러 숨을 고르고
차 한 잔에 이야기를 풀며
시간은 어느새 화살처럼 흘러간다

이제 돌아갈 시간,
차에 시동을 거는데 움직이지 않는다
AS 기사님이 와서 알려준 건
고장이 아니라 키를 잘못 끼운 것

한바탕 웃음이 터지고
봉고차 안은 또다시 웃음바다

햇살은 뉘엿뉘엿, 집으로 가는 길
일흔의 동갑내기들,
재치와 유머로 함박꽃 같은 웃음을 피운다

몸은 여기저기 아프지만
마음은 여전히 소녀

호수처럼 잔잔하고 부드러운 인연,
부담없이 '자기' 라고 부르며 가까워진다

서로에게 감사하며 하루를 마무리한다
붉은 노을, 저만치서 손짓하며
“오늘 참 좋았다”고 말해준다



「맛나는 교회」 공개방송

지난 6월 22일, CBS 방송국의 「맛나는 교회」 공개방송이 우리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처음에는 ‘예배’ 때 ‘방송’을 한다고 하여 어색하기도 하였으나, 막상 시작하니 은혜와 감동이 가득했던 시간이었고, 성도들 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나눌 수 있는 귀한 자리였습니다.

반가운 출연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표인봉 목사님과 임지규 배우님이 MC로 오셔서 밝고 편안하게 진행해 주셨고, 민호기 목사님과 여니엘 자매님의 은혜로운 찬양인도는 많은 성도들의 마음을 울리며 눈시울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성도 10명의 짧은 간증과 인터뷰가 이어졌는데, 평소 언급하지 않던 성도님들의 마음속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간증을 듣던 성도들도 고개를 끄덕이고 눈시울을 붉히는 모습이 곳곳에서 보였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위로와 용기를 나누며 공동체가 한층 더 가까워진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방송을 계기로 평소 교회에 오지 않던 이웃분들도 몇 분 참석하셨는데 어색해하실까 걱정했지만, 함께 웃고 찬양하며 따뜻하게 어울려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TV와 CBSJOY 유튜브를 통해 전국에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방송됨으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더 뜻깊게 다가왔습니다.

「맛나는 교회」 촬영은 우리 교회의 새로운 시도였고, 또한 주님이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새로운 은혜를 받았고, 지역 주민들과도 조금 더 가까워졌으며, 교회 전체의 분위기도 한층 밝아지고 따뜻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새로운 시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분명히 체험하며 감사와 감격이 넘쳤습니다. 앞으로도 영등포중앙교회가 이웃에게 따뜻하게 다가가고, 복음을 기쁨으로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QR코드를 통해 '맛나는 교회' 공개방송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탕자를 찾아 주신 하나님

임 중 무 원로장로 (제1남선, 사무엘속)

기독교 방송 프로그램 ‘맛나는 교회’는 신앙의 유익함이 참으로 큰 방송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직접 출연하여 귀한 은혜와 간증을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 참여하여 신앙 간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에 감사드립니다. 방송에서는 시간 제약으로 다 나누지 못한 간증을 소식지를 통해 자세히 전하려 합니다. 부족한 저의 과거를 공개하는 일에 망설임도 컸지만, 이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에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유년 시절부터 시골의 작은 교회에 다녔고, 중·고등 시절까지는 열심히 새벽기도회에 나갈 정도로 뜨거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가정형편이 좋지 않아 ‘피어선 성경학교’를 중퇴해야 했고, 형님의 사업을 돕기 위해 영등포에서 십 년 넘게 살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는 세속에 빠져 방탕한 길에서 헤매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특히 술을 벗 삼아 지내며 하나님과는 절교한 것과 다름없는 생활이었고, 직장마저 술 만드는 OB맥주 공장에 취업해 알코올의 늪 속에 깊이 잠겨 사는 것 같았습니다. 이러한 방탕한 생활은 곧 육체의 병으로 이어졌습니다. 위장병이 생겨 십여 년 동안 병원을 전전하며 치료했으나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병세가 심해졌습니다.

고된 병마로 인해 회사에 출근조차 못 하고 누워 지낼 때, 장로님이신 매부께서 저를 찾아와 꾸짖으셨습니다. “너 어려서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더니, 하나님 없이 살아 지금 이 모습이 무엇이야! 당장 교회에 나가라!” 이 꾸지람을 듣는 순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하는 깊은 깨달음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병원 치료의 효과가 없음을 인정하고, 즉시 교회로 돌아가 백일동안 새벽 기도로 신앙심을 회복하겠다는 약속을 실천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저의 죄를 깨닫게 하셨고, 저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깊이 경험했습니다. 백일을 거의 채웠을 때, 저에게는 영적으로 떨리는 꿈이 임했습니다. 두 명의 장정이 나타나 “너는 죽어야 한다!”며 저를 흙탕물에 던졌고, 겨우 빠져나온 저를 붙잡아 검은 두건을 씌우고 총으로 위협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저는 그들의 다리를 붙잡고 “살려주시면 평생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겠습니다” 하고 매달렸습니다. 이 말을 들은 그들은 저를 놓아주고 떠나갔습니다.

놀랍게도, 그 꿈을 꾸고 난 그날부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늘 배가 아파서 약 없이는 살 수 없었던 제가 더 이상 배가 아프지 않았습니다. 기분이 상쾌하고 힘이 생기니, 그야말로 살맛 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오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 위장병으로 병원을 찾을 일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의 병을 완벽하게 고쳐주신 증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탕자 된 저를 친히 찾아와 주셨고,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아들로 살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택한 자녀를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하시며, 절망적인 순간에도 회개를 통해 완벽한 치유와 회복을 주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성화로 만나보는 복음

최후의 만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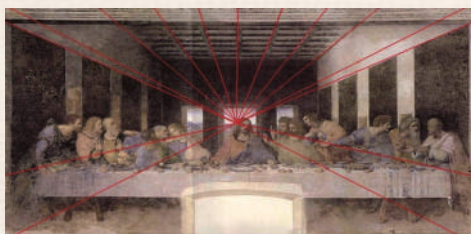
이 현 민 청년
(홍익대학교 서양화와 재학 중)

기독교의 성화, 종교화라고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생각나는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많은 이들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떠올릴 것 같다. 하지만, 작품의 이미지와 제목만 익숙할 뿐,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이 작품만이 아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화들은 눈에 익은 만큼 자세히 살펴볼 가치가 있다. 특히 크리스천이라면 성경적 의미를 분석하며 더욱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니, 이 글을 통해 그 첫걸음을 내디뎌보도록 하자.

〈최후의 만찬〉은 1495년경, 다빈치가 이탈리아 밀라노의 수도원에 그린 대형 벽화이며,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며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극적인 순간을 담은 작품이다. 이후 교회 성찬의 원형으로 작용한 이 장면은 예수님의 죽음, 희생을 통한 구원을 상징한다.



The Last Supper, Leonardo da Vinci, 1495–1498, tempera on gesso, pitch, and mastic, 460 x 880 cm



최후의 만찬 원근법 분석

작품의 구도를 분석해 보면 천장, 벽, 창문, 식탁의 선이 모두 예수님의 머리 중앙으로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예수님이 원근법의 초점인 것이다. 또한, 예수님의 머리 뒤의 창문은 후광의 역할을 하여 그의 신성함을 강조한다. 중심에서 차분한 예수님과 달리, 혼란 속에 빠진 열두 제자들은 3명씩 4그룹으로 모여서 의미심장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를 알 수 있는 이유는 각 인물의 제스처와 표정이 심리 상태를 명백히 드러내기 때문이다. 종교화에서 감정을 철저히 배제하던 르네상스 이전의 미술과 확연히 다른 다빈치의 표현 방식은 당시 매우 혁신적이었다. 이처럼 다빈치는 예수님을 ‘빛의 중심’이자 ‘혼란 속의 고요’로 표현하며 최후의 만찬의 순간을 모두에게 각인시키는 명작을 만들어냈다.

한편, 이 대작을 재해석한 현대미술가가 있었으나... 바로 앤디 워홀이다. 그는 〈최후의 만찬〉의 미술사적 의미와 더불어 대중문화에 널리 소비 및 유통되는 이미지에 주목했다. 참고로, 워홀이 다룬 ‘팝아트’는 1960년대에 번성한 미술 사조로, 대중문화의 이미지를 작품에 적극적으로 끌어들이어 순수 예술과 대중 예술의 경계를 허물었다. 워홀은 밀도 있는 묘사 등의 표현 대신, 대중적인 소재를 평면적으로 단순화시켜 복제 및 대량생산을 하는

‘공장’ 같은 표현 방식을 이용했다. 그리고 이러한 유머러스한 표현 속에 당시 사회에 대한 풍자와 비판적 시각을 담기도 했다.

앤디 워홀은 1986년에 자신의 〈최후의 만찬 시리즈〉를 만들었다. 그중 하나인 〈Sixty Last Suppers〉는 원작



Sixty Last Suppers, Andy Warhol, 1986, acrylic and silkscreen ink on linen, 294.6 x 998.2 cm

을 흑백 실크스크린으로 60회 복제한 작품이다. 대중들이 지속적으로 소비하는 명작을 의도적으로 반복 및 나열하여 그것의 신앙적 의미보다는 이미지 자체가 너무나 익숙해져 버려 무감각해진 인간의 마음을 담아냈다. 색채 또한 흑백으로 통일하여 의미의 소멸을 강조했다.

같은 시리즈의 다른 작품인 〈The Last Supper(Pink)〉에서는 다가가기 힘든 느낌의 종교적 이미지에 대표적인 상업적 색상인 ‘핑크’를 입힘으로써, 신성함과 세속의 경계를 허물었다. 실크스크린에 컬러 오버레이를 덧입힌 이미지는 인물들의 표정과 형상을 약화시켜 원작의 빈 껍데기만을 남겼다. 변한 것은 색상뿐이지만, 기존의 신성한 종교화와는 상당한 거리감이 느껴진다.



The Last Supper (Pink), Andy Warhol, 1986, acrylic on canvas



The Last Supper (Dove), Andy Warhol, 1986, synthetic polymer paint on canvas, 302.9 x 668.7 cm

또 다른 버전으로는 원작 위에 비누 브랜드 ‘Dove’의 로고가 덧입혀진 〈The Last Supper(Dove)〉가 있다. ‘Dove’는 비둘기를 뜻하며, 이는 기독교에서 성령의 상징이기도 하다. 그러나, 비누 브랜드로서의 ‘Dove’는 세속적인 상업 사회를 상징한다. 속죄와 정화의 하얀색 속에 그려진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그 위에 그려진 로고는 현대 사회의 종교의 소비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보게 한다.

이처럼 워홀은 신앙의 의미가 흐려진 시대를 원작의 여러 변형을 통해 나타내고자 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미지를 낯설게 만들며 메시지를 전하는, 일종의 ‘충격 요법’을 이용한 것이다. 크리스천에게도 이러한 ‘낯설’을 맞닥뜨리는 시간이 필요하다. 더 이상 신을 찾지 않아도 될 것만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가? 본인에게 익숙한 이야기들은 ‘이미 알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흘려듣지는 않았는가? 더 나아가서, 모든 말씀의 기반인 ‘사랑’의 의미를 제대로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남에게 받는 사랑은 당연시하고, 내가 사랑 베풀기는 꺼려 하지 않았는가?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스스로 질문해 보길 바란다. 로마서 2장 4절 말씀에서는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그대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한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과 오래 참으심을 업신여기는 것입니까?’라고 묻는다. 대중문화 속 하나의 이미지로만 남은 성화처럼, 자신의 신앙이 익숙함에 속아 가벼워진 빈 껍데기는 아닌지 돌아보고, 회개하여 다시금 정성껏 채워나갈 수 있길 소망한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



최 태 수 목사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시원한 바람이 부는 9월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에서는 “두 배 부흥 전도 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매 주일 “두 배 기쁨! 두 배 결실! 할 수 있다! 영혼 구원!”이라고 구호를 외치며 우리 마음에 전도의 불을 지폈고, 한 영혼이라도 꼭 전도하기 위해 전도할 대상자 이름을 카드에 적어 전도 나무에 걸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전도 대상자 이름을 적어 내자니 그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서 교회 오라고 해야 할지 용기가 안 나고, 전도 대상자 이름을 적어 내지 않으니 마음이 불편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는 전도, 왜 해야 할까요?

복음을 전하는 일, 곧 전도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면 예수님은 요한이 잡힌 후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때가 왔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영광을 돌리려 하자 예수님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막 1:38)”라고 말씀하시며 전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도 예수께서 죄인 삭개오를 만나는 것을 수군거리는 사람들에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오직 복음만 전하셨던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 28:19-20)”라며 제자들에게 전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 된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전도해야 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으려 다녔지만,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목숨을 잃을 위기를 몇 번이나 마주하고도 사명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 마침내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처럼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합니다. 바울이 자신을 처서 복종하며 사명을 위해 달려갔듯이 우리도 사명을 위해 달려가야 합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지 염려하며 주저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라고 보내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6장 7절을 보면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보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권능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나의 능력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명에 따라, 믿음 안에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사명에 열정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입을 열기만 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루십니다. 바라기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명의 길, 전도자로 살아가는 영등포중앙교회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배 부흥 전도 축제를 준비하며



김 성 중 목사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행 2:47)

가을의 끝자락, 우리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두 배 부흥 전도 축제의 마지막 결실을 향해 견고 있습니다. 지난 9월 7일 ‘전도 축제 선포식’으로 시작된 이 여정은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회의 영적 회복과 부흥을 향한 3개월간의 믿음의 행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생명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주님의 손길을 매주 느끼며 우리는 걸어왔습니다.

각 부서가 맡은 사명 속에서 놀라운 협력과 헌신이 이어졌습니다. 기획팀이 전체 로드맵을 세우고, 미디어팀은 감동적인 영상들을 만들어냈으며, 진행&홍보팀은 교회 로비에 ‘전도나무’를 세워 이름 하나하나를 열매처럼 걸었습니다. 물품준비팀은 각종 선물과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였습니다. 봉사팀은 음식과 대접을 맡아주셨고, 기도팀은 아침부터 밤까지 릴레이로 무릎을 꿇으며,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교회에서 기도하였습니다.



▲ 표인봉 목사 간증집회



▲ 전도 워크숍



▲ 오페라 봄춘향 공연

이런 여정 위에서 우리는 수많은 은혜의 장면들을 경험했습니다. 9월 21일에 열린 브릿지 집회I-간증집회에서는 표인봉 목사가 세상 한복판에서 복음을 붙들고 살아온 이야기를 전하며, ‘나도 복음의 증인으로 서야겠다’는 결단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어진 9월 24일, 신현희 목사의 전도 워크숍은 실제 전도의 방법을 배우는 시간 이상이었습니다. 전도란 “누군가를 교회로 데려오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사랑하시는 그 영혼 곁에 머무는 일”임을 다시 깨닫게 했습니다.

9월 28일과 10월 19일에 두 차례에 걸쳐 ‘전교인 노방전도’가 진행되었습니다. 성도들이 거리로 나서 전도용 선물을 나누고, 사람들의 눈을 보며 복음을 전할 때, 단 한 사람의 미소 속에서도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10월 13일부터 릴레이 기도회가 시작되어, 교회는 하루 12시간 동안 끊이지 않는 기도의 향기로 채워졌습니다. “기도는 성령의 도화선이다”라는 말처럼, 이 기간동안 교회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예배마다, 모임마다, 준비하는 손길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졌습니다.

10월 19일부터 22일까지 열린 브릿지 집회II - 교회창립 89주년 부흥회에서는 유병용 목사님(현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남연회 감독)께서 ‘기억되는 믿음에 도전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성령의 권능과 부흥의 비전을 선포하는 그 말씀은, 우리 모두의 심령을 새롭게 흔들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는 말씀이 실체가 되어가는 시간, 교회의 공기가 바뀌고, 기도의 불길이 다시 타올랐습니다.

10월의 마지막 날, 브릿지 집회III에서는 ‘이웃과 함께하는 음악회 - 봄춘향’이 열렸습니다. 교회 문턱을 처음 밟은 지역 주민들이 음악과 이야기를 통해 복음을 접하는 감동의 순간이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흘러나온 선율보다 더 아름다웠던 것은,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영혼 위에 흘러내린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었습니다.

이제 곧 11월 16일 총력 전도 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날은 지난 세 달의 기도와 헌신이 하나로 모이는 절정의 순간으로 기념할 것입니다. 예배당은 찬양으로 가득 차고, 구원의 기쁨이 교회 안에 흘러넘칠 것입니다. 남성·여성 중창단의 찬양과 교회학교의 발표, 그리고 미디어팀이 준비한 마지막 영상이 그 은혜의 현장을 증언하게 될 것입니다. 결신자 작정과 새가족 환영식이 이어지고, 그날의 기쁨은 단순히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생명의 역사를 써 내려가시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총력 전도 주일을 앞두고 각자가 품은 전도 대상자 명단을 들고, 다시 한번 무릎을 꿇게 됩

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게 하소서”

돌아보니, 이번 두 배 부흥 전도 축제는 ‘교세 확장’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나 자신을 새롭게 세우는 영적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전도를 배우며 나 자신이 복음을 다시 배웠고, 한 영혼을 품으며 내 믿음의 깊이가 더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두 배의 부흥’은 단지 숫자의 증가가 아니라, 기도의 열정, 예배의 감격, 사랑의 실천이 두 배로 커지는 부흥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11월의 찬양처럼 우리 공동체의 영원한 노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 걱정에서 설렘으로, 그리고 기대함으로



김 경 미 권사
(제11여선, 래미안6속)

한창 더운 여름, 갑자기 전도부 회의가 잡혔다. 11월에 있을 전도 축제를 위한 아이디어를 생각해 오라는 연락을 받은 순간, 나는 당황스러웠고 걱정으로 머리가 아팠다. 그리고 생각해 낸 것이 ‘이 축제는 어느 부서가 주관하는 거지? 축제면 전도부 주관이 아닐 수도 있겠네? 이것부터 질문해 보자!’

첫 회의. 나의 첫 질문은 어김없이 “전도부가 주관하는 것인가?”였다. 전도 축제인데 ‘전도’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축제’라는 단어에 초점이 갔다. 전도부가 주관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왜 이런 질문부터 하게 되었는지를 나는 안다.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그래서 회의를 시작할 때부터 머리도 아프고 걱정도 되고, 한숨이 절로 나오기도 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회의를 거듭할수록 나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다. 지금의 나는 걱정이 아닌 설렘으로 회의에 참석하고, 하나님의 멋진 일을 기대하고 있다.

늘 걱정으로 회의에 참석한 어느 날. 전도가 정말 힘들다는 푸념을 하게 되었다. 그때 전도의 열매는 하나

님이 맺는 것이고 우리는 단지 씨를 뿌리는 자임을, 우리 교회에 온 그 사람은 그 누군가가 우리 이전에 씨를 뿌렸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오가면서 전도의 부담을 덜 수가 있었다. 어찌보면 전도의 결과를 하나님이 아닌 내가 맺으려고 하는 나의 교만으로 전도 축제에서 ‘전도’가 아닌 ‘축제’로 부담을 덜고 싶었던 것이다.



목사님들과 전도부 부장, 차장 및 팀장들은 주일마다, 때론 수요일 늦은 밤까지 회의를 했다. 부담을 좀 내려놓으니 막막하기만 했던 전도 축제가 하나씩 하나씩 틀이 잡혀가고 걱정이 슬그머니 설렘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기도하면서 자료조사와 다른 교회의 여러 행사를 알아보고, 전도 나무와 릴레이 기도판을 함께 만드는 과정에서 ‘함께 하는 즐거움’도 알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행사마다 걱정보다는 어떻게 될지 설레게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멋지게 이루실지 기대하게 되었다.

전도 축제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과 사연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선택받았음을 감사하게 되었다. 전도 대상자를 위한 작성서를 내고, 그들을 위한 중보기도 카드를 만드는 일, 릴레이 기도와 전교인 노방전도, 부흥회와 지역 음악회, 여러 개의 홍보영상과 각종 포스터 및 전도지, 물품 준비와 애찬 등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전도라는 축제를 하나씩 채워가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영등포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여러 모양으로 함께 참여하고 봉사하도록 하나님이 앞에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채워진다.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단지 도구로 쓰일 뿐이니 내가 걱정할 것이 없다.

그러니 나는 앞으로 남은 축제를 더욱더 즐겨야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전도를 설렘과 기대함으로 마음껏 즐길 예정이다.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이 축제를 마음껏 즐기시길 소망한다. 우리가 마음껏 즐길 때 모든 것을 주관하고 이끄신 하나님도 행복하심을 알기 때문이다.

부흥회, ‘다섯 가지 기도 제¹²목’을
기억하며...



박 은 영 권사
(제12여성, 대우숙)

이번 부흥회는 ‘두 배 부흥 전도 축제’의 두 번째 브릿지 집회 과정으로 브니엘 교회 담임이신 서울남연회 유병용 감독님이 강사로 오셔서 ‘기억되는 믿음에 도전하라’는 주제로 나흘 동안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① 성령으로 새롭게 ② 기도 ③ 축복의 원리 ④ 하나님의 방법 ⑤ 축복의 열매 ⑥ 기적의 조건 ⑦ 복음의 능력이라는 소제목으로 전하신 일곱 번의 설교는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말씀을 하나하나 해석해 주셔서 의미를 알아가며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제까지 모르고 읽었던 성경의 귀한 뜻을 알게 되어 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강사 목사님은 설교 말씀에 은혜를 받을 때 조용히 경청만 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성향과 많이 다르게, 말씀 듣고 마음으로 믿어지면 바로 큰 소리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께 내 입술로 표현하게 하셔서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고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참여한 성도들은 초반엔 다소 굳은 표정이었지만, 중간중간 유감독님의 유머와 위트가 더해지자 점차 편안하게 웃는 표정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부흥회가 우리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을 변화시키고 영혼의 회복과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 교회학교 초등부와 중고등부 시절을 신앙 교육 아래 자랐습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어 청장년 시기엔 바쁘게 직장생활을 하며 그야말로 ‘선데이 크리스천’으로 살았습니다. 결혼 후 아이 돌봄 문제로 시댁 근처인 당산동으로 이사 오게 되었고, 집 앞의 가장 가까운 교회(영등포중앙교회)에 주일 예배만 간신히 드리는 정도로 이 십여 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항상 제 옆에는 어머니의 권면과 기도가 있었고, 그 기도를 알기에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가정과 사회에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하며 살았지만, 제 삶에는 주님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직장생활 할 때도 기독교인이라고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크리스천들의 부도덕한 모습을 세상이 비난했던 것처럼 나도 비판받을까 봐 두려웠습니다. 내 이기적인 모습, 높아지려는 욕망, 물질 앞에서의 나약함, 여러 가지 우상숭배의 모습 등 이제껏 모르고 살았던 제 모습을 어느덧 오십 중반을 넘어서 지금 (몸이 적응할 수 없는 불편한 갱년기라는 시기, 안식년 휴가의 귀한 시간을 보내면서) 깨닫고, 후회하고, 과거의 연약했던 내 모습을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며 말씀 안에서 살아가셨던 어머니의 신앙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주님 곁에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정과 자녀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항상 기도하셨던 어머니의 믿음을 따라가기에는 너무 부족하지만, 이제부터는 제가 그 자리를 지켜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까지 20년 이상 성전 마당만 밟고 지내왔던 세월, 지금은 하나님 은혜로 안식년 휴식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성도들과 만나고, 화합하고, 함께하는 신앙공동체에서 연합하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번 부흥회 하루하루가 저에게는 다짐하고, 도전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회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일곱 번의 예배를 믿음으로 노력하며 끝까지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흥회 기간을 통하여 매번 말씀하셨던 5가지 기도제목(성령 충만, 영혼 구원, 질병 치유, 자녀들을 위해, 삶의 문제를 위해)을 기억하며 하나님 뉘아가는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교회 하반기 주요 행사인 두 배 부흥 전도 축제를 위해 성도들과 한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하고, 사랑으로 초청하며, 감사로 복음을 전할 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 믿습니다.



MBTI? 나와 다른 성격 이해하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처음 만날 때 꼭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MBTI가 뭐예요?” 처음 들어보시면 조금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MBTI는 요즘 세대에게는 자기소개와 소통의 도구로 자리 잡은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MBTI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MBTI는 Myers-Briggs Type Indicator의 약자로, 사람의 성격과 에너지의 방향, 사고방식, 생활 패턴의 차이를 네 가지 기준으로 나눈 검사입니다. 이 검사를 통해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성향을 지녔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MBTI는 단순히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말하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이해하고, ‘다름’을 인정하며 존중하기 위한 관계의 도구입니다. 누군가는 말이 많고 활발하지만, 누군가는 조용하고 깊은 생각을 좋아합니다. 그 차이가 틀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양하게 지으신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MBTI를 통해 우리는 각자의 개성을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는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MBTI의 네 가지 기준

MBTI는 다음 네 가지 기준으로 사람의 성향을 살펴봅니다.

1. 에너지의 방향 – 외향형(E : Extraversion) vs 내향형(I : Introversion)

사람들과 어울리며 힘을 얻는가 vs 혼자 있을 때 에너지가 충전되는가?

2. 정보를 받아들이는 방식 – 감각형(S : Sensing) vs 직관형(N : Intuition)

지금 눈앞의 사실을 중시하는가 vs 가능성과 미래를 상상하는가?

3. 판단의 기준 – 사고형(T : Thinking) vs 감정형(F : Feeling)

이성적으로 판단하는가 vs 관계와 감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가?

4. 생활의 태도 – 판단형(J : Judging) vs 인식형(P : Perceiving)

계획적으로 움직이는가 vs 유연하게 대응하는가?

이 네 가지가 조합되어, 총 16가지 성격유형(예 : ESTJ, INFP 등)이 만들어 집니다.

크리스천 MBTI : 나는 어떤 성향일까?

#질문은 총 20개입니다. A와 B 중에서 가까운 항목을 선택하고, 결과도 확인해 보세요 .

Q1. 신앙 고민이 있을 때 나는?

- ㉠ 담당 교역자나 교회 동료들에게 털어놓는다. ☐
- ㉡ 일단 기도하며 혼자 고민한다. ☐

Q2. 교회에서 수련회에 갈 때 버스를 탄다면,

- ㉠ 누구랑 앉아서 이야기를 해 보지? ☐
- ㉡ 버스에는 쉬면서 혼자 가고 싶어. ☐

Q3. 공동체에 새가족이 들어올 때 나는?

- ㉠ 어떤 분일까? 다가가서 인사해 볼까? ☐
- ㉡ 차차 기회가 생기겠지. ☐

Q4. 속회 모임의 인도를 맡게 되었다.

- ㉠ 나를 위한 자리군. 함께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
- ㉡ 어떡하지, 나 대신 해줄 사람 없나? ☐

Q5. 속회 모임을 마치고 저녁까지 먹고 가자고 한다.

- ㉠ 좋지, 먹고 나서 카페도 갈까? ☐
- ㉡ 난 집에 가서 충전 좀 해야겠어. ☐

Q6. 내가 베드로라고 상상한다면?

- ㉠ 내가 베드로?... 상상이 잘 안되는데... ☐
- ㉡ 재밌겠다! 나도 과연 물 위를 걸을 수 있을까? ☐

Q7.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부분을 나눌 때,

- ㉠ 회사를 예시로 드니까 와닿더라. ☐
- 나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
- ㉡ 갑자기 한 줄기 빛이 내 마음속에 미치는 것 같았어. ☐

Q8. 교회에 새로운 사역자가 온다면,

- ㉠ 예전에 함께 사역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참 친절하신 것 같아. ☐
- ㉡ 얼굴에서 인자한 기운이 느껴지지 않아? ☐
- 좋은 분 같아.

Q9. 공동체에서 선물을 교환하기로 했다.

- ㉠ 무조건 실용적인 게 최고지. ☐
- ㉡ 이거 웬지 저 친구한테 어울릴 것 같아서 샀어. ☐

Q10. 처음으로 성가대를 시작한 친구를 만나면,

- ㉠ 연습은 얼마나 해? 선곡은 누가 하는 거야? ☐
- ㉡ 갑자기 성가대는 왜 들어간 거야? 연습은 재밌어? ☐

Q11. 친구가 신앙 고민을 털어 놓는다면,

- ㉠ 힘들겠다. 그 마음 알아. 조금만 더 기도해 보자. ☐
- ㉡ 뭐? 그런 일이 있었어? 난 전혀 몰랐어. ☐

Q12. 공동체에 갈등이 있거나 사건이 생기면,

- ㉠ 저기 분위기가 이상한데, 무슨 일이지? ☐
- ㉡ 뭐? 그런 일이 있었어? 난 전혀 몰랐어. ☐

Q13. 다른 사람이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

- ㉠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같이 눈물이 난다. ☐
- ㉡ 왜지? 무슨 일이 있나? ☐

Q14. 지인이 모임 시간에 늦었다.

- ㉠ 사과했으니까 괜찮아. ☐
- ㉡ 늦은 이유가 있었으니까 괜찮아. ☐

Q15. 공동체의 동료와 다툼 뒤에 화해를 한다면,

- ㉠ 그땐 정말 속상했지만 나도 미안해! ☐
- ㉡ 그런 점은 앞으로 서로 조심하면 좋겠어. ☐

Q16. 단기 선교를 등록할 때 나는,

- ㉠ 등록도 1등! 준비도 미리미리 하는게 좋지. ☐
- ㉡ 마감 전 마지막으로 등록. 준비는 그때 가서! ☐

Q17. 예배에 참석할 때 내 모습은,

- ㉠ 예배 시작 15분 전에 도착해 자리를 잡고 준비한다. ☐
- ㉡ 아 지하철 놓쳤네! 오늘도 뛰어야겠다. ☐

Q18. 교회 사람들과 등산하러 가는 날, 지각자가 발생했다.

- ㉠ 5분 뒤에 출발해야 되는데, 조정해야겠군. ☐
- ㉡ 조금만 더 기다리지 뭐, 곧 올거야. ☐

Q19. 속회 모임에서 누군가 주제를 벗어나는 이야기를 꺼내면,

- ㉠ 주제에 맞지 않는 내용이니 적당히 넘어가야겠군. ☐
- ㉡ 흥미로운데? 그래서 어떻게 됐어? ☐

G20. 교회의 친한 권사님과 밥을 먹기로 했다.

- ㉠ 넷째 주 금요일 7시에 만나는 거 어때? ☐
- ㉡ 내일 퇴근하고 만날래? ☐
- 메뉴는 내일 먹고 싶은 걸로 먹자.

결과

A/B, C/D, E/F, G/H 중에 개수가 많은 쪽의 유형을 확인하세요.

A의 개수가 많다면 당신은 외향형(E), B의 개수가 많다면 당신은 내향형(I)입니다.
C의 개수가 많다면 당신은 감각형(S), D의 개수가 많다면 당신은 직관형(N)입니다.
E의 개수가 많다면 당신은 감정형(F), F의 개수가 많다면 당신은 사고형(T)입니다.
G의 개수가 많다면 당신은 판단형(J), H의 개수가 많다면 당신은 인식형(P)입니다.

NF형 | 영감을 주는 사람들 (이상주의자형 / 감성적 신앙인)

MBTI 유형 - ENFP, INFP, ENFJ, INFJ

사람 중심적이며, 공감과 감동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특징을 가집니다. 이분들은 공동체의 정서적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들고, 영적 연결에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NT형 | 진리와 비전의 사람들 (이론가형 / 지성적 신앙인)

MBTI 유형 - ENTJ, INTJ, ENTP, INTP

논리적이며 비전을 세우는 데 능하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이분들은 신학, 교리, 교육에 관심이 많고, 체계적 사고로 교회를 세우려 하는 사람들입니다.

SF형 | 섬김과 돌봄의 사람들 (인간관계형 / 따뜻한 현실주의자)

MBTI 유형 - ESFJ, ISFJ, ESFP, ISFP

사람들을 잘 돌보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데서 기쁨을 느낀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이분들은 공동체의 필요를 민감하게 파악하며,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ST형 | 실행력과 질서의 사람들 (현실주의자형 / 실천적 신앙인)

MBTI 유형 - ESTJ, ISTJ, ESTP, ISTP

체계적이고 현실 감각이 뛰어나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이분들은 일을 정확하게 수행하며, 질서와 효율을 중요시하고,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신념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각 MBTI별 대표 성경 인물

ENTP 솔로몬, 느헤미야	ENTJ 요셉	INTP 사도 요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전략을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지혜로운 솔로몬처럼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고, 느헤미야처럼 계획을 세워 변화를 이끌어가는 지도자형입니다.	목표지향적이고 책임감이 강한 리더형입니다. 요셉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완성한 강력한 추진력을 보여줍니다.	깊이 있는 사색과 통찰력을 지닌 사색가형입니다. 요한처럼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며, 진리를 깊이 탐구하고 본질을 찾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각 MBTI별 대표 성경 인물

INTJ 드보라, 도마 전략가이자 통찰력 있는 비전가입니다. 드보라는 냉철한 판단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었고, 도마는 의심을 통해 더 깊은 믿음에 이른 사고형 제자였습니다.	ENFP 다윗 감정이 풍부하고 자유로운 영혼형입니다. 찬양과 시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때로는 충동적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실한 열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ENFJ 에스더, 바나바 사람들을 세우고 이끄는 따뜻한 리더형입니다. 에스더처럼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바나바처럼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일으키는 성품을 가졌습니다.
INFP 모세, 마리아 내면이 깊고 진심이 강한 이상주의자형입니다. 모세처럼 정의감과 사명감이 강하며, 마리아처럼 마음속에 말씀을 간직하고 묵상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INFJ 누가, 예레미야 통찰력 있고 공감이 뛰어난 조용한 조언자형입니다. 누가처럼 세심하게 사람을 돌보고,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며 눈물로 중보합니다.	ESTP 베드로 즉흥적이지만 용기 있고 행동이 빠른 현실형입니다. 베드로는 때로는 실수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ESFP 기드온 활발하고 감각적인 분위기 메이커형입니다. 기드온처럼 처음엔 두려워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합니다.	ISTP 마가 실용적이고 손재주가 뛰어난 유형입니다. 마가처럼 조용히 일하며, 필요할 때는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현실적 성향입니다.	ISFP 아브라함 온유하고 신실한 내면형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묵묵히 순종하는 부드러운 신앙의 모델입니다.
ESTJ 마태, 야고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지도자형입니다. 마태처럼 질서와 책임을 중요하게 여기며, 야고보처럼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가입니다.	ESFJ 사라, 스테반 따뜻하고 헌신적인 돌봄형입니다. 사라처럼 가족을 사랑하고, 스테반처럼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ISTJ 디모데 성실하고 원칙을 중시하는 신뢰형입니다. 디모데처럼 맡은 일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믿음의 일관성을 보여줍니다.
ISFJ 롯 온유하고 헌신적인 돌봄형입니다. 롯처럼 묵묵히 사랑을 실천하며, 가족과 공동체를 향한 충성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냅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들 MBTI는? ● 최태수 목사님 ENFJ ● 김성중 목사님 INTP ● 김난경 목사님 ISFJ ● 신승민 목사님 ENFJ	

MBTI는 현대 사회에서 세대 간, 성격 간 이해를 돕는 좋은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서로의 성향을 이해한다면, 더 따뜻하게 대화하고, 더 배려하며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독특하게 만드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MBTI를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영등포중앙교회 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5 케냐 단기선교팀

‘케미스트리’의 9박 11일



박은정 전도사

케냐는 우리 교회가 약 30년 가까이 선교하는 나라입니다. 특별히 ‘엠부’라는 지역에 여러 교회들과 학교 등을 세워 복음을 전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2025년 8월 4-14일(9박 10일), 총 23명(청년 14명, 장년 5명, 목회자 4명)이 케냐 단기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케냐에서 복음이 살아 움직이도록, 공동체 안에 은혜의 반응을 일으키며, 선교라는 사명 안에서 케냐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자는 여러 의미를 Chemistry(화학반응)이라는 단어에 담아 “Kemistry(케미스트리, Kenya+Mission+Story)”로 팀명을 결정했습니다.

5월부터 매주 주말마다 오순도순 모여 교제를 나누었고 케냐 선교를 위해 기도하며 프로그램들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중 색달랐던 준비시간이 있었다면, 케냐 그레이스 스쿨 어린이들에게 뜻깊은 선물을 주었으면 하는 마음에 최광례 권사님을 중심으로 뜨개질 동아리에서 뜨개모자를 떠주신 것입니다.

권사님들께서 교회와 가정에서 쉬지 않고 정성스레 떠주신 뜨개모자 200개와 여러 준비물을 챙겨 23명의 팀원은 케냐 땅을 향한 두근거리는 마음을 품고 10시간이 넘는 시간을 날아갑니다. 케냐 땅에 도착해서부터 여러 난관이 있었지만 저희를 반겨주시는 김윤식 선교사님을 무사히 만날 수 있었습니다. 뜨겁게 내리쬐는 햇빛은 우리 팀을 환영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케냐에서 가장 큰 사역은 두 가지로, ‘그레이스 스쿨 어린이들을 위한 성경학교’와 엠부지역 교회들의 ‘청년, 청소년 연합캠프’였습니다. 선교팀은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주제로 준비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진행했습니다. 코스마다 재미있는 게임들을 구성하여 아홉 가지 열매의 의미를 설명해 주었고, 특별하게 세족식을 진행하여 발을 닦아주며 선물로 준비한 뜨개모자를 씌어주는 뜻깊은 시간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연합캠프에서는 청소년, 청년들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무엇인지 생각해볼 수 있도록 짧은 강의(이성태 장로, 박은정 전도사, 이수정 청년)가 있었고 간단한 MBTI를 검사해보며 자신의 성향을 알아가 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다른 언어 속에서 소통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사랑의 마음과 미소로 함께 놀아주며 교제를 나누다 보니 금세 친해져서 헤어짐에 큰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이번 선교팀 여정의 특별한 점은, 탄자니아 선교지를 방문하는 일정이었습니다. 김윤식 선교사님의 아내이자 탄자니아 마사이족 선교를 하고 계신 배경식 선교사님과 일정이 맞은 덕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버스를 타고 8시간이 넘게 달려 도착한 탄자니아 땅에서도 우리를 사용하셨습니다. 주일 아침, 200명이 넘는 마사이족 어린이들이 교회에 왔습니다. 생각지 못한 인원수에 모두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엠부 지역보다 더 척박하고, 발전되지 못한 땅, 여성의 인권이 낮은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배경식 선교사님과 그녀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교팀원들 모두 목격할 수 있었고, 마음 깊이 뜨거움을 느꼈습니다.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고, ‘암보셀리’라는 사파리를 방문했습니다. 눈 앞에 펼쳐지는 광대한 땅과 동물들이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코끼리, 기린, 얼룩말, 가젤을 비롯하여 평소에는 보기 힘든 표범과 사자를 보고, 이들이 철창에 갇히지 않고,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광경 속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의 이치를 생각해보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 선교팀 모두가 깨달은 것은, ‘우리의 계획과 의도대로 흘러가는 것은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무언가를 하려고 하기보다,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안에서 그들을 받아들이며 그들과 웃고 떠들고 노는 것이, 관계를 세워나가는 사랑임을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셔서 지금도 어딘가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게끔 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같은 방식을 통해 영동 포종양교회에 속한 이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 사람을 통해 교제하게 하시고 지원받게 하셔서 케냐 엠부 땅에 복음을 심게 하신 겁니다. 케냐 엠부 땅의 복음화, 교육의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애쓰셨던 모든 분들과 최태수 담임목사님, 신승민 목사님,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 케냐의 목회자들께 감사한 마음이 드는 시간이기도 했으며 우리의 선교지인 케냐 엠부를 위해 성도들이 함께 관심과 기도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사역을 돌아보고 깨달음과 감사를 기억하며 한국으로 안전하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다음과 같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내려놓음의 시간, 사랑 안에서



유 현 지 청년
(젊은이교회)

선교 지원 전 - 마음의 배경

케냐 선교를 다녀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벌써 그 여정이 제 기억 속에서 미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닐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던 대전에서의 생활 속에서 감당하기 벅찬 일을 혼자 맡으면서 무력감과 불안 속에서, 저는 점점 일상을 벗어나고 싶다는 갈망을 품고 있을 때 케냐선교팀원 모집 공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열정을 되찾고 싶었고, 현실에서 벗어나 낯선 나라로 떠나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뜨거웠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긴 휴가를 내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 지금이 아니면 떠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돌아보니 케냐에 가서 어떤 활동을 하게 될지 자세히 살펴보면, 케냐와 탄자니아와 그곳에 있는 아이들을 향한 마음이 생겨서라기보다는 떠나고 싶은 마음이 더 큰 이유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선교 준비 과정 - 감정의 파도 속에서

23명의 선교팀원 중 몇몇 얼굴은 익숙했지만, 대부분은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낯설고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첫 선교 모임이 진행되었고, 그 자리에서 ‘왜 선교에 지원했는지’를 나누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선교팀은 세부 팀으로 나뉘었는데 저는 물품 관리팀을 맡게 되었습니다. 매 주말에 있는 정기 준비 모임에는 참석할 수 있었지만, 대전에 거주하다 보니 주중에 진행되는 공연 연습과, 선교팀 중보기도 모임에는 참석





할 수 없어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묵상과 기도를 이어가려 했지만 마음이 잘 집중되지 않았고, 케냐와 탄자니아를 향한 마음이 자라기엔 제 시간과 노력은 너무 부족했습니다.

선교 출발을 앞두고 선물 물품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선물을 받게 될 아이들을 떠올리며 어느 물품이 더 좋을지 신중하게 고민하며 밤마다 회의를 거듭하다 보니 물품에 집중하느라 제 마음과 영적인 준비는 점점 더 미흡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고,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물으며, 그분의 마음을 품는 것을 구했어야 했습니다.

택배와 짐은 하나둘씩 교회에 쌓여가고 있었지만, 대전에 있는 저는 아무 일도 진행하지 못하는 듯한 무력감에 마음의 짐이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결국 휴가를 하루 더 내고 교회에 와서 하루 종일 물품 패킹을 하다가 케냐 선교를 위한 금요 기도회에 참석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케냐와 탄자니아에서 만날 아이들에게 나눠줄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이 제 안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선교를 준비하는 이 시간 동안 나는 정작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자책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선교를 떠나기 전날, 사모님과 권사님들께서 요리팀의 짐을 정리해 주시는 모습을 보며, 분주함과 부담감으로 지쳐 있는 저와 다른 차분하고 안정적인 태도에서 큰 위로와 평안을 느꼈습니다. 막막하게만 느껴졌던 일들이 적극적인 도움 덕분에 빠르게 마무리될 수 있었고, 덕분에 제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그렇게 쫓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에서도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나의 노력과 계획이 아닌, 하나님이 이끄시는 선교팀이 되게 하시고, 케냐까지 불러서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가게 하시며, 그 사랑을 전하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준비의 시간이 비록 힘들었지만, 결국 그것이 제 마음을 하나님의 뜻 앞으로 이끄는 여정이었습니다.

케냐와 탄자니아 선교 현장 - 그 사랑 안에서

공항으로 출발하는 주일 아침까지도, ‘내가 정말 케냐에 가는구나’라는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파송 배와 공연 준비로 아침부터 정신없이 바빴고, 어느새 공항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보니, 준비한 18개의 이민 가방 중 3개에 구멍이 나 있었고, 공용 캐리어의 바퀴 하나는 떨어지기 직전이었습니다. 당황스러운 상황이었고 그 가운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지만 제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모든 짐이 케냐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케냐에 도착한 첫날 밤 잠자리에 들기 직전, 함께 방을 사용하게 된 현민이가 이곳에 오는 여정을 지켜 주



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일의 사역을 기대하는 마음을 담아 조용한 가운데 소리 내어 기도해준 순간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며 ‘정말 선교지에 왔구나, 이제 내가 기대하고 준비했던 일정이 시작되는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사역지인 ‘그레이스 스쿨’에 도착했을 때, 정말 어린 4살 아이들부터 선생님들까지 전원이 밖에 나와 저희를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언제 도착할지도 모를 텐데 얼마나 오래 기다렸을까...’ 싶은 마음이 들었고, 처음 보는 저희를 향해 사랑과 기쁨으로 환영해주는 그 모습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의 저였지만, 먼저 사랑으로 다가와 준 아이들과 선생님들 덕분에 자연스럽게 웃고, 마음을 열 수 있었습니다.

둘째 날, 제가 맡았던 교육 프로그램 중 하나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 ‘신실’을 주제로 한 활동이었습니다. 안대를 착용한 채 친구의 목소리만을 따라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체험을 반복해서 인도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의미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세상 속을 걸어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혼자 두지 않으신다는 것, 계획하신 목적지까지 다다르게 하기 위해 언제나 곁에서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 자신도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좋은 동역자 되어 함께 걷고 도와주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예상보다 더 어린아이들이 많았던 그레이스 스쿨, 예정보다 많은 학생들이 참석한 중·고·청 연합 캠프에서는 제한된 시간 안에 준비한 교육 내용을 다 전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상심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다고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얼마나 잘했느냐 보다, 그들과 함께한 시간 동안 어떤 마음과 태도로 사랑했는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뿌린 작은 씨앗과 아이들의 웃음 속에서 앞으로도 일하실 것임을 마음에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탄자니아에서는 주일 예배를 드린 후, 아이들에게 한국어와 영어 찬양 율동을 가르쳐주고, 아이들은 마사이족의 전통춤을 가르쳐주는 교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너도나도 자신의 소중한 목걸이를 선교팀원들 목에 직접 걸어주던 모습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표정과 몸짓만으로





도 충분히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공통점을 제외하면 나이, 언어, 국적, 환경과 같은 모든 것들이 달랐지만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선교 여정을 돌아보며 - 배움과 다짐

사랑을 전하려고 갔던 그 자리에서, 오히려 더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낯선 환경, 처음 만난 아이들이라 쉽게 다가가지 못하고 망설이던 저에게, 아이들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그 손길 속에 담긴 따뜻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계획된 일정들을 감당하기 위해 선교팀원들은 서로를 도우며 응원하고, 위로하며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한다’라는 사명감을 안고 갔지만, 막상 그 사랑을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돌아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전하기에 앞서 저희를 이끄신 것 같습니다. 말씀만 열심히 전하면 되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물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 사랑이 있었느냐?”

이번 케냐, 탄자니아 선교는 청년과 장년이 함께한 선교였습니다. 돌아보니, 담임목사님, 사모님, 권사님과 장로님께서 언제나 마음과 감정의 무게 중심을 잡아 주시고, 팀 전체를 지켜봐 주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을 앞서 살아온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할 수 있었던 것이 참 감사했고, 가까이서 보고, 이야기 나누며 배울 수 있었던 시간 또한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 저는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맡겨진 일을 잘하려는 마음도 좋지만, 하나님께서는 동행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않고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과 둘째, 서로 다른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셔서 각기 다른 달란트로 채워가게 하시며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려놓음의 시간’을 허락하셨고, 저는 그 안에서 진정한 순종과 의탁을 배웠습니다. 앞으로의 삶에서도, 불안전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나마야니》를 읽고, 탄자니아 땅을 밟으며

- 탄자니아 마사이족 선교지 방문과 소회



이 수 정 청년
(젊은이교회)

2025년 케냐 단기선교팀 케미스트리는 9박 11일의 선교 여정 중 2박 3일, 48시간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케냐의 국경을 넘어 나망가와 롱기도 지역 사이에 있는 탄자니아 땅을 밟게 되었다. 케냐만 해도 충분히 낯설었지만, 탄자니아 사역지는 완전히 새로운 곳이었다. 남반구에 위치한 탄자니아의 8월은 건조한 겨울로, 나망가 국경 지역의 넓은 대지는 긴 세월 사람의 손길을 타지 않은 자연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었다. 우리 팀의 차량은 선교센터에 가기 위해 포장되지 않은 흙길에 올라섰다. 주위를 둘러싼 들판에는 사람 키를 훌쩍 넘어서는 개미집이 널려있었다. 그런 탄자니아 국경으로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 배경식 선교사님이 나타났다. 케냐 엠부에서 만난 김윤식 선교사님의 아내이자, 책 《나마야니》(배경식 저, 2025)의 저자이며, 탄자니아에서 마사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목회자 선교사이다. 책의 제목인 '나마야니(Na-Mayani)'는 마사이 성도들이 배신 교사님에게 지어준 마사이 이름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라는 뜻이다.

우리가 마사이 성도들과 함께한 시간은 주일 오전과 오후에 불과하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선교지 도착 전 읽은 《나마야니》, 선교지에서 만난 '나마야니'로 인해 탄자니아는 모든 일정 가운데 가장 짙은 기억이 되었다. 그곳에서의 경험과 책을 읽으며 느낀 점에 대해 나눠보고 싶다.



마사이에게 배우는 믿음

아프리카의 많은 지역은 잘 알려져 있듯, 종교 분쟁은 많고 마실 물은 부족하다. 이러한 특성으로 일어난 롱기도 지역의 한 사건을 책에서 소개한다. 이곳의 식수는 우물을 파서 공급하는데, 우물 시추를 위해서는 인프라가 필요하다. 인프라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차량이 들어와야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도 필요하다. 그러나 이곳에는 포장된 도로는커녕, 들어오는 차량도 망가질만한 통행 환경에, 우물 개발에 필요한 인프라는 갖추어져 있





지 않다. 그러던 어느 날, 한 NGO 단체가 우물을 파주겠다고 제안했다. 마실 물을 제공한다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었고, NGO 단체는 그들이 가진 자본과 기술력을 통해 단박에 우물을 뚫어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NGO 단체는 무슬림 단체였다. 마사이 성도들이 이 사실을 알면 거절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먼저 물을 파준 후에 물을 핑계로 이슬람 사원과 학교 및 병원을 세울 땅을 요청하며 본래의 목적을 드러낸 것이다.

이곳 성도들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 그들은 단호하게, 이슬람 단체에서 판 우물을 덮기로 결정했다. 생명과도 같은 물, 학교와 병원이라는 필요를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 편에 서기를 선택한 것이다. 거대 자본을 힘입은 무슬림과 사이비 교단이 지속적으로 이 땅에 손길을 미치려고 하지만 마사이 성도들은 계속해서 거부하며 싸우고 있다. 하나를 내어주면 결국에는 나와 내 이웃과 모든 것을 내어주게 된다는 것을 알고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이들이다.

단기선교팀원 지원이는 새로운 숙소로 갈 때마다 수질 지수를 체크하는 기기를 들고 다니며 숙소마다 물이 얼마나 깨끗한지 확인하곤 했다. 탄자니아에서 지냈던 숙소는 일정 중 경험했던 곳 가운데 현대화가 가장 덜 되어있었다. 그러나 그 어떤 좋았던 숙소의 물보다도, 페트병에 들어있던 생수보다도, 또 우리가 자랑스러워 하는 아리수보다도 뛰어난 수질 지수를 자랑했다. 그 물은 다름 아닌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을 받아 그때그때 물탱크에 저장한 물이었다. 선교사님도 그 빗물이 그렇게 깨끗한 줄은 모르셨던 것 같다.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공급하시는 가장 깨끗한 것으로 살아가는 마사이 성도들의 삶에 대한 증언처럼 느껴졌다. 척박함 가운데 맑음을 간직한 땅이었다.

그러나 이 땅은...

복음은 이 땅을 바꾸어가고, 마사이들의 의리와 신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름답게 빛나도록 한다. 그러나 여전히 변화가 필요한 부분도 남아있다.

마사이의 시간의 흐름은 인류 역사 초반부의 모습을 많이 띠고 있다. 물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이들도 있고,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목축업을 중심으로 하는 부족 공동체 사회이며, 이에 따라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한다. 다양한 사회적 맥락이 얹혀있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 남아 어른을 중심으로 한 사회이며, 가임기 여성은 가족에 가까운 취급을 받고 어린이들은 단순 노동 인력으로 취급받는다.

한 명의 남편은 여러 명의 여성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다. 이때 염소나 잘 쳐주면 소 한 마리를 주고 아내를 데려오기 때문에 딸은 재산 증식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 그렇기에 어렵사리 학교에 나가 세상과 소통하는 수단인 스와힐리어와 산수를 배워도, 아버지가 결정하면 어느 때고, 누구에게고 시집을 간다. (남성은 물론) 여성 할례가 지속되며, 가족을 주고 사 온 생산 수단이기 때문에 임신과 출산을 계속해서 반복한다. 이에 비해 의료 기술이나 위생적인 환경은 갖추지 못해서 출산 전후로 사망하는 이들이 여전히 많다.



어린이들에 대한 대우도 크게 나은 점이 없다. 단기선교팀이 선교센터에서 진행한 행사라고 해봐야 대단한 것이 없다. 같이 놀아주고 시간을 보내며 작은 선물들을 나누었을 뿐이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 시간이 소중하다. 집에 가봤자 여차피 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학교가 드물게 세워진 곳이기에 아이들은 몇 시간이고 걸어서 학교에 가거나, 아버지가 모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야 한다. 통학에 드는 비용과 그 시간 동안 멈추는 노동 모두 자녀가 부모에게 지는 신세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배신교사님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 여성 사역자를 마사이 성도들의 리더로 세우셨고 마을의 이장과 우두머리들 가운데 인정받게 하셨다. 그렇게 인정받은 권위는 가장 소외된 곳으로 흘러가는 사랑이 된다.

소통집에서 자연분만하는 소녀들을 향한 선교사님의 울음소리는 정부 차원에서의 지역 내 산부인과 클리닉 병동 설립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학교와 도서관을 열 수 있도록 애쓰고 아이들이 배울 수 있도록 부모를 설득하기도 한다. 남편들의 소유물로 여겨지는 여성들을 전도부인으로 세웠고, 이들을 통해 다시금 마사이 공동체는 말씀, 찬양, 기도가 충만해진다. 가정에서는 어머니의 역할을 세우고, 여성 할례 금지 및 질병 예방 등의 보건 교육도 함께 해나간다. 마사이 성도들은 막무가내로 성경을 보면서 문맹에서 벗어나기도 하며,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남의 말이 아닌 눈으로 읽어 맛본다. 이를 통해 그들 스스로 한 명의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존엄성을 깨닫는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귀한 존재임을 깨우쳐 간다.

우리의 쓰임이 있었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들의 지난 3개월이 우리에게만 유의미한 일정이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는 잠시 머물렀을 뿐이지만,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의 씨앗이 뿌려졌기를 기대해본다.

함께한 시간을 통해 인종, 나이, 성별을 넘어 같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동등한 입장에서 드리는 예배를 그들이 경험했기를 바란다. 청년들을 아끼며 물심양면으로 돕는 장년 팀원분들의 모습을 보며 그 땅의 어른들이 아이들을 더욱 사랑하기를 바란다. 성별에 상관없이 동역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통해 누구든 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 전해졌기를 바란다. 지구 저 편에서 누군가는 이러한 모습으로도 살아가며, 각자가 자신의 삶을 충만히 누리고, 개개인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 있음을 보였기를 바란다. 그 모든 분이 되기에 우리는 부족한 존재인 것이 확실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게 하신 사회로부터 얻은 산물과 공동체로부터 얻은 사랑이 있기에 그런 열매도 꿈꿔본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교류해야 하고 나의 고유함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야 한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사 55:9)

단기선교 일정 마지막 밤 선교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참 부끄러웠다. 나는 왜 그렇게 부끄러웠을까? 그

간의 소회를 정리하는 지금도 그 이유를 찾는 중이지만, 몇 가지 떠오르는 생각들을 나누며 소감문을 마무리해본다.

이번 선교는 단기선교팀장의 입장에서 나름의 미션들을 마음속에 품고 갔다. 그리고 그 미션이 완성되었을 때 받을 은혜를 위한 갈망, 정해둔 간증을 향한 열심이 앞섰던 것 같다. 경험하고 체감할 것들을 나도 모르게 정해두고 있었다.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그 문제가 해결되면서 은혜를 얻겠지?' 하는 식의 모범답안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내가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제한적이었다. 그렇다면 나에게서는 무엇을 보여주셨을까?

결국 모든 일정을 정리하며 내게 남은 것은 이 여정이 우리에게 준비되기까지 들어간 마음과 정성이었다. 선교지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곳에서 복의 통로로 세워지는 선교사, 이로 인해 변화를 소망하는 사람들, 교회 공동체의 지원, 사역자들의 헌신, 그리고 우리 팀원들이 신앙 가운데서 씨름하는 모습이었다. 내가 계획한 은혜까지 더해졌다면 말할 수 없이 기뻐겠지만, 그 은혜에 가려져 지금 느끼는 것들을 덮어두었음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은 지금이 좋다. 알곤킨(?) 당신은 보통 그렇듯, 내가 정해둔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신다.

내게 보여주시려고 한 것은 선교지의 모습 그 자체가 아닐까 싶다. 사역마다의 은혜를 수집하기보다는 선교 현장 자체를 알고, 선교사에게 진 빛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셨나 보다. 그 과정 가운데 인생을 거는 믿음이 무엇인지도 어렵듯이 느껴본다. 광활한 황야와 암보셀리 초원을 바라보며 온 땅을 채우는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속에 품어본다.

마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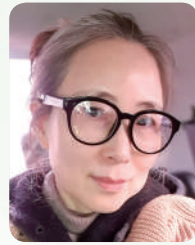
어느새 나는 어디선가 본 간증과 들어서 알게 되는 것만 많아지는 교회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러한 상념 끝에, 이제는 성도로 거듭나기를 다짐해본다. 먼저 많은 성도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선교팀이 방문하게 된 선교지를 마음에 품는 자가 되고 싶다. 또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들의 수고를 귀하게 여기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다. 무엇을 듣고 어떤 것에 동의하든지, 하나님께서 일하실 방향을 마음대로 설정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은혜든 깨달음이든 소명이든, 주시는 대로 받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정말 마지막으로는, 함께 기도하고 싶은 제목을 남긴다. "주님께서 광야에서 야곱을 찾으셨고, 짐승의 울음소리만 들려오는 황야에서 그를 만나, 감싸 주고, 보호하고,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켜 주신(신 32:10)" 것처럼, 김윤식-배경식 선교사 부부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기를 함께 기도하고 싶다. "주님께서만 홀로 그 백성을 인도하시고, 다른 신은 옆에 있지도 않은(신 32:12)" 깨끗한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엠부와 마사이의 삶을 두고 함께 무릎 꿇고 싶다.



성도의 삶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권영근 성도
(제12여성, 김포속)

최태수 담임목사님과과의 제자훈련에 12부 여성교회가 함께 했습니다. 9주간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매주 목요일 저녁 핸드폰과 컴퓨터로 얼굴을 마주 보면서 다 함께 열심을 냈습니다. 목사님의 질문에 긴장하고 엉뚱함으로 답할 때도 있었지만, 신앙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들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매번의 과정은 은혜롭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지도해주신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초여름 함께했던 공부, 유난히 덥고 길었던 여름을 지나고 다가온 가을 풍년처럼 우리에게도 거룩한 충만함으로 넘쳐나길 기도합니다. 과정 중, 저의 모든 선택들이 하나님으로 인한 하나님의 선택이었음을 알게 된 순간 모든 것이 다시 보였습니다.

제 속의 자아가 흔들렸고, 착각 속에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나의 모든 날들이 힘든 고난과 고통의 순간들까지도 하나님은 저를 위해 인내와 연단으로 거둢날의 시간을 만들고 계셨고, 고난도 감사할 수 있도록 ‘크게 가르치심’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계셔 늘 저와 함께하셨고 지금도 저와 함께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고 계신 주님, 제게 완전히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고 저의 모든 순간들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길 소망합니다. 저의 편안함을 위한 간구가 아니라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며 모든 것을 주께 맡기는 그런 시간들을 살기를 원합니다.

올여름 가슴 아팠던 7월 16일, 셋째 언니 영면의 날이 지난해 제가 세례 받았던 날과 겹쳤습니다. 이 일 또한 우연이 아니라, 저를 하나님께로 이끈 언니의 충성된 믿음과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저에게 친히 보여 주신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말씀에 늘 민감하자고 하면서도 게으른 저의 미숙한 신앙이 기복신앙이 아닌 지복신앙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점점 좋아지는 저의 믿음이 식지 않기를, 성령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녀 양육

말씀 안에서

다시 배우는 부모의 길



박 미 정 집사
(제13여선, 대우속)

요즘처럼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기 버겁고 가치관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부모로서 자녀를 어떻게 믿음으로 세워갈지 고민하는 마음으로 영종부모모임(Good Parents)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첫 만남부터 자녀들의 나이도 각각 다르고, 집안에서 믿음의 모습도 다양하지만 부모로서 자녀 교육에 대한 불안과 걱정은 공통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달동안 주 토요일 오전에 함께 모였는데 말씀을 나누고 서로의 양육 이야기를 들으며 따뜻한 위로와 도전을 받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수산나 웨슬리를 통해 살펴본 자녀 양육”이었습니다. 열아홉 명의 자녀를 말씀과 기도로 키워낸 그녀의 삶은 그동안 자녀 셋 다동이 엄마로서 느끼던 무게감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도 필요한 < 자녀교육을 위한 27가지 규칙 >은 가정의 일상 속에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신앙교육을 이룰 수 있는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바쁜 현실 속에서도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귀 기울이며, 짧은 순간이라도 함께 기도하고 대화하는 부모가 되어야겠다고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성경을 통해 본 자녀 양육과 21세기 한국의 신앙교육 방향”이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자녀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가정과 교회가 함께 서야 함을 나누었습니다. 아이들과의 갈등, 예배 습관,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 등 현실적인 문제들을 함께 이야기하며, 비록 완벽하지 않아도 믿음의 본을 보이는 부모의 모습이 가장 큰 신앙교육임을 다시금 마음에 새겼습니다.

모임을 통해 저는 ‘아이들의 성장과 함께 부모도 자라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서로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안에서 다시 힘을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영종부모모임이 계속 이어져,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워가는 부모 공동체로 자라가길 소망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잠언 22:6)

이번 양육반을 인도해주시고 기도로 함께해주신 신승민 목사님과 소중한 경험을 함께 나누어주신 부모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모의 작은 순종이 다음 세대의 믿음의 씨앗이 되길 소망합니다.

교회력,

시간 속에 숨은 복음



신승민 목사

우리는 바쁘고 촘촘한 세상 속에서 '시간'에 이끌려 삽니다. 하지만 복음은 '시간'이 곧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임을 알려줍니다. 교회력은 바로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구원 사건을 따라 걸도록 돕는 신앙의 '달력'입니다. 현대의 달력이 생산성과 일정 관리를 위한 도구라면, 교회력은 기억과 참여를 위한 도구입니다. 기억은 과거 사건을 현재에 불러오고, 참여는 그 사건 속으로 우리의 삶을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력은 단순한 전통이 아니라, 복음으로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제자도의 리듬입니다.

1년을 예수님의 이야기 순서로 다시 걷게 하는 '교회력', 중요한 것은 복잡한 지식이 아니라 각 절기를 보내며 '무슨 사건을,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 보려 하는가'입니다.

1. 강림절(대림절, Advent)

강림절은 어둠 속에서 천천히 밝아오는 새벽과도 같습니다. 성탄을 앞둔 4주간의 시간 동안, 우리는 "오시옵소서"라는 짧은 기도 제목을 품고 마음의 방을 정리합니다. 대림초에 불이 하나씩 더해질수록 희망·평화·기쁨·사랑이라는 단어가 우리 일상에 자리를 잡습니다. 기다림은 손 놓고 멈춰 서는 일이 아닌 관계를 돌아보고, 불필요한 소음을 줄이며, 약속을 향해 공간을 비워 내는 행동입니다. 이사야의 예언과 세례 요한의 외침이 귓가에 맴도는 동안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을 마음으로 상상하는 동안 아기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조금 더 가 베풀리고, 시선은 조금 더 또렷해집니다.

2. 성탄절(Christmas)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 곁으로 가까이 오신 사건을 기뻐하는 시간입니다. 베들레헴의 작고 낮은 자리에 아기 예수께서 누워 계신다는 사실은, 높아지려 애쓰던 우리의 마음을 잠시 내려놓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탄의 기쁨은 선물의 크기와 비례하지 않습니다. 화려한 장식이 없어도, 함께 앉은 식탁과 서로를 향한 짧은 축복 속에 존재하는 따스한 사랑이 성탄절의 본질입니다. 누군가의 문을 먼저 두드리는 현대, 말보다 오래 남는 배려, 짧은 가정 예배의 찬양 한 곡이 성탄의 빛을 길게 이어 줍니다.

3. 주현절(Epiphany)

'주님이 나타난 날'이라는 뜻을 가진 주현절은 '드러남'의 시기입니다. 요단강 물 위로 예수님의 정체가 분명히 드러나며,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활동은 하나님의 구원의 서막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그분의 말씀은 한 줄기의 빛이 되어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줍니다. 눈부신 스포트라이트라기보다 발

앞을 밝히는 등불에 가까운 예수님의 빛, 우리도 그 빛에 비추어 자신의 자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직장 and 가정, 학교와 동네가 우연이 아니라 소명의 현장임을 받아들이면, 같은 일을 해도 마음의 결이 달라집니다. “나는 무엇을 통해 이웃을 살릴까?”라는 한 줄 소명이 주현절의 기도문이 됩니다.

4. 사순절(Lent)

사순절은 ‘재의 수요일’로 시작해 40일 동안 이어지는 동행의 시간입니다. 광야에서 유혹을 이기신 주님을 따라, 우리는 나를 지배하는 습관과 소유와 감정을 점검합니다. 줄일 것 하나와 더할 선행 하나를 정해 일상에 적용해 보면, 마음은 비워질수록 넓어지고 삶은 단순해질수록 단단해진다는 것을 배웁니다. 이 절기의 끝자락인 ‘고난주간’에 이르면 발걸음이 한층 느려집니다. 종려주일의 환호는 금세 사라지고, 성목요일에는 서로의 발을 씻기며 성찬의 식탁에 앉습니다. 성금요일에는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나의 연약함과 값없이 주어진 은혜를 묵상합니다, 그리고 성토요일에는 애도의 침묵 속에 머뭅니다. 슬픔을 충분히 통과한 자만이 부활의 기쁨을 온전히 품을 수 있음을 기억하며, 이 시간을 충분히 보내는 가운데 마음을 적실 필요가 있습니다.

5. 부활절(Easter)

부활절의 새벽은 “끝이 아니다”라는 현재형 소식을 들고 옵니다. 빈 무덤 앞에서 여인들이 놀랐던 것처럼, 우리도 오래 붙잡고 있던 두려움과 체념이 힘을 잃는 순간을 경험합니다. 부활은 죽음 이후 내세에 대한 약속만이 아니라 지금 삶을 바꾸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미뤄 두었던 용서를 시도하고, 닫아 두었던 대화를 열어 보며, 지친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용기를 얻어야 합니다. 교회는 부활주일을 시작으로 여러 주 동안 ‘감사’를 연습합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고백하며, 소망을 힘입어 살아가는 부활의 절기를 잘 보내는 사람은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과 사랑으로 지음 받았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6. 성령강림절(Pentecost)

성령강림절을 보냈다는 것은 이제 교회력의 절반에 해당되는 절기를 지내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날들을 가리켜 흔히 ‘보통의 날’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이날들은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이웃의 필요와 만나고, 믿음의 고백이 손과 발을 얻어 움직이기 시작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강림절부터 부활절까지는 순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상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 안에서 나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 직장 and 가정, 교회와 나라 등을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지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강림절은 마치 닫힌 문을 여는 바람과 같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면의 두려움은 조용히 물러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그 길 가운데 뿌려진 사랑의 씨앗은 결실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집니다. 보통의 날을 거룩하게 사는 법을 배우는 동안, 교회는 가장 교회다워지고, 성도는 가장 성도다워질 수 있습니다.

교회력을 보내는 성도의 자세

강림의 기다림은 준비가 되고, 성탄의 낮아짐은 환대가 되며, 주현의 빛은 소명이 됩니다. 사순의 절제는 여유를 만들고, 부활의 소망은 용기를 낳습니다. 그리고 가장 긴 성령강림절기 속에서 우리는 파송된 사람으로 보통의 날을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특별한 날들이 우리를 깨우고, 보통의 날들이 우리를 단단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을 새롭게 하시는 사랑하는 영등포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가족과 함께 하는 영중유치원

영중유치원은 영등포중앙감리교회 부속유치원으로 4학급 82명의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 가운데 배움을 이어가고 있으며, 올 한해도 다양한 경험을 통해 즐겁게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치원 어린이들은 초중고 학생들보다 부모의 영향을 더욱 절대적으로 받기에 다른 어떤 학교기관 보다 교육공동체로서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여 부모와 함께하는 가정과의 협력이 이루어져야 좋은 배움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중유치원은 어린이들이 지내는 학교지만, 교육의 대상은 어린이뿐 아니라 어린이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부모까지라고 생각하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내 자녀가 유치원에서 보내는 8시간 가까운 시간 동안 선생님, 친구들과 어떻게 지내는지 매우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학부모가 유치원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을 이해하고,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부모님과 소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모 참여수업

매년 학기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유치원에서 지내는 자녀의 일과를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유치원으로 부모를 초대합니다. 자녀와 함께 짝이 되어 유치원도 돌아보고, 하루의 수업을 직접 참여하면서 유치원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부모 참여수업’을 하는 것입니다. 올해도 4월에 어머니와 아버지를 유치원으로 초대하여 참여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담임선생님과 교실에서 인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어떻게 하루일과를 보내는지, 자녀들이 배우는 음악, 영어, 만들기 수업들을 직접 경험하고, 특히 신나는 체육시간과 동극활동을 자녀와 함께 참여하며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자녀를 따라 유치원에 방문한 부모들은 자녀와 같은



▲ 아빠와 신나는 체육시간



▲ 아빠와 함께 세상에 하나
뿐인 보드게임 만들기



▲ 아빠와 함께 하는 동극활동



▲ 엄마와 함께 음악 수업



▲ 엄마를 초대해서 이야기 나누기하는
고운반 어린이들



▲ 엄마와 함께하는 악기연주

눈으로 유치원을 돌아보고 마음으로 느끼면서, 자녀를 이해하는 폭도 커지고 자녀가 다니고 있는 영중유치원에 대한 믿음도 키워나가게 되었습니다.

부모님 소감

“평소 유치원에서의 생활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규칙을 지키고 선생님 말씀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며, 기본생활 습관 교육을 잘 받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준비하느라) 힘들었을 것 같지만, 내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엄마들도 챙겨주며 타인을 위해 노력하고 돕는 법을 배우는 것 같아 좋아 보였습니다.”

“아이의 유치원 생활을 간접적으로라도 체험하고 우리 아이의 또 다른 모습을 보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영중 놀랜드

올해는 교회학교에서 진행하는 ‘놀랜드’ 행사에 영중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와 그 가족 모두를 초대하여 영중유치원의 설립기관인 영등포중앙교회 모든 공간에서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영중유치원 어린이들과 부모가 참석하여, 예배를 드리는 본당과 지하식당에서 다양한 게임과 간식을 나누었고, 마당에 마련된 거대한 놀이기구를 타며 놀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모님과 어린이들



▲ 공 뽑기



▲ 카드 게임



▲ 마당에서 게임을



▲ 실내 에어바운스 놀이



▲ 멋진 풍선아트 만들기



▲ 팽이 시합

이 웃는 모습은 참 보기 좋았습니다. 영등포중앙교회 성도님들의 많은 섬김의 손길들을 통해 영중유치원 학부모들은 교회를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과 음악회 관람

어린이들을 위한 클래식 공연인 ‘악기야 놀자’ 음악회를 영등포아트홀에서 가족과 함께 단독으로 관람하였습니다. 우수한 문화 공연을 통해, 어렵고 멀게만 느껴졌던 클래식 악기 바이올린, 첼로 등을 연주자와 같이 직접 연주도 해보고, 가족과 함께 음악에 맞춰 춤도 추어 보았습니다. 유치원이 아닌 다른 공간이었지만, 유치원 친구들과 공연장에서 모든 가족들이 함께 음악에 취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가족 소풍

2학기에는 가족과 함께 ‘소풍’을 다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주신 맑은 하늘 아래에서 영중유치원 친구들은 가족들과 유치원에서 준비한 여러 가지 모둠 활동들을 하면서 서로를 더 잘 알아가게 되었고, 협동해서 치즈를 만들고, 직접 피자를 만들면서 유치원 안에서는 할 수 없는 귀한 추억을 만들고 돌아왔습니다. 가족 소풍을 통해 자녀가 생활하는 유치원 친구들의 가족들과도 인사를 나누고 커다란 교육공동체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 가족과 함께 만드는 피자



▲ 동물 먹이주기



▲ 꼬리잡기 놀이를 즐겨요



▲ 가족과 함께 만드는 피자



▲ 다트 시합



▲ 동물 먹이주기

부모님 소감

“아빠, 엄마와 함께 만들고, 뛰어놀아 아이들이 재미있어하네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주셔서 아이들과 행복한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아이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해서 기뻛고, 놀이를 통해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 매우 좋았습니다.”

“함께 체험활동 할 수 있어서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주말에나 겨우 할 수 있는 놀이들을 아이와 함께 할 수 있어서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그 외에도 개인 상담과 부모교육을 진행하며,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와 그 가족이 함께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영중유치원에 다니는 모든 어린이들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보내주시고 맡겨주신 어린이라고 생각하며, 유치원에 소속된 모든 교직원들은 맡은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부족하지만 힘써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영등포중앙교회의 부속 영중유치원이 지역사회에 있는 귀한 어린이들과 그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영등포중앙교회 성도님들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청장년 모임

'Special Day'

3040세대와 그들의 가족으로 이루어진 청장년선교회 모임에서는 따뜻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미술관과 보로로파크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함께한 첫 만남을 시작으로, 9월까지 총 네 번의 스페셜 데이를 통해 서로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는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특별한 여정에 함께 했던 몇 분의 소감을 나눕니다.



▲ 서로를 알아가기 게임



▲ 식사 & 얼굴그리기



‘스페셜 데이’를 함께하며...’



김인규 집사
(청장년선교회 회장)

2025년 청장년속(영중속) 회장으로 임명되었을 때, 여러모로 부담이 컸습니다. 기존 멤버들이 대부분 남선교회나 여선교회로 이동했고, 새로 온 인원들의 출석률도 저조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적은 인원이라도 견고하게 모임을 만들자’라는 취지 아래, 매주 네댓 명이 꾸준히 모여 청장년속 나눔을 이어갔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10~20명씩 모이던 상황을 생각하면, 당시 청장년부는 분명한 과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새로 올라오는 청장년들이 잘 정착하도록 돕기 위해 매달 한 번씩 ‘스페셜 데이’를 진행했고, 이 모임은 새로운 인원들과의 소통 창구가 되어주었습니다. 덕분에 6개월 만에 인원수가 늘기 시작했다는 기쁜 소식을 9월 프랑스 출장에서 돌아온 후 들었을 때,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이는 김성중 목사님 내외와 임원들의 청장년부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노력, 기도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장년선교회의 영적 성장을 위한 소중한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따를 때도 있었지만 함께 손 모아 기도하는 힘을 확신했고,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스페셜 데이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임을 통해 청장년들이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더욱 깊이 알아가며 공동체의 끈끈함을 느끼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지만 동행해 주시는 주님 덕분에 두렵지 않습니다. 청장년선교회가 더욱 부흥하며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모임이 되길 기도합니다.

교회 공동체에 드리는 기도 부탁

3040세대 청장년들은 교회의 미래이자 현재를 지탱하는 중요한 축입니다. 이 귀한 모임이 계속해서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젊은 세대가 교회 공동체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청장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함께’의 기쁨을 경험하고, 신앙 안에서 성장해 나가길 소망하는 3040세대 청장년 참여를 언제나 환영합니다. 다음 스페셜 데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곧 공지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한강유람선에서

‘함께에서 더 특별했던 시간’

박은택 · 최선아 성도 (영종속)



이번 청장년 모임들을 돌아보면, 정말 ‘함께’라는 말이 딱 어울린 시간이었습니다. 5월에는 온 가족이 함께 한강 유람선을 타고 바람을 쐬며 시간을 보냈는데, 유람선 위에서 본 하늘과 시원한 강바람이 참 특별했습니다. 배 안에서 서로 안부를 나누고 아이들이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니, 우리가 같은 배를 탄 공동체라는 것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어진 피크닉 자리에서는 돛자리를 펴고 음식을 나누며 이야기꽃을 피웠는데, 단순한 간식나눔이 큰 잔치처럼 느껴졌습니다.

7~8월에 있었던 스페셜 데이는 그 분위기를 이어 실내에서 더 따뜻하게 모였습니다. 같이 밥을 먹고 선물도 나누며 레크리에이션을 했는데, 그중에서도 ‘얼굴 그리기 게임’이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옆 사람 이름이 적힌 종이에 돌아가면서 그림을 덧붙이다 보니, 예상치 못한 모습이 완성되었고, 마지막에 주인을 맞히는 과정에서 큰 웃음이 터졌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엉뚱하게 표현한 그림 덕분에 더욱 친해지고 편안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스페셜 데이 모임은 단순히 행사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고 웃고 대화하면서 관계가 자라난다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아이들과 어른이 같은 자리에 앉아 웃는 모습이 마음에 오래 남았고, 이것이 우리가 다음 세대에 전하고 싶은 ‘신앙의 온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소그룹 교제나 기도 파트너 활동을 통해 더 깊은 나눔이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자리를 정성껏 준비해 주신 목사님과 임원진,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겨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만남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오래도록 힘과 위로로 남기를 바랍니다.



▲ 한강유람선에서

다음세대를 함께 세워가는 영종교회학교

사랑받고, 사랑할 줄 아는 다음세대

교육관 리모델링 공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유치·유년·초등부 예배당이 한층 더 밝고 깨끗한 공간으로 새 단장 되었고, 지하 1층은 어린이 풋살장과 에어바운스를 비롯하여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 변모되었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폐쇄 상태였던 지하 3층 스포츠 시설이 13년 만에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되기도 했습니다.

좋은 공간은 사람을 머물게 합니다. 아이들이 새롭게 단장된 교회학교 공간에 더욱 오래 머물며 함께 예배하고, 성경을 배우며, 맛있는 간식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자라고 꽃피우기를 소망합니다.

여름 기간동안 교회학교는 아이들의 마음에 또 다른 복음의 씨앗을 심노라 분주했습니다. 나들이(영아부), 성경학교(유치·유년부), 수련회(초등·청소년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전하고, 나눴습니다. 자세한 은혜의 이야기들은 각 부서 코너에서 확인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종교회학교는 아이들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나눠줍니다.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야.”

“너는 아름답고, 멋있어.”

“너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어.”

우리 아이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는 고백으로 이어지도록, 함께 기도해주시고 마음을 모아 주시길 소망합니다.



영종교회학교 주요일정

11월 친구초청예배, 달란트시장(~12월)

12월 성탄발표회, 졸업예배

1-2월 신입생 환영, 겨울 성경학교 및 수련회



01

영아부

성서이야기를 통해 자라나는 영중씨앗



영·유아 (24개월 전후)는 전 감각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감동의 언어’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영·유아에게 감동과 기쁨과 놀람이 있는 성서 이야기들의 언어를 많이 사용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알고 느끼며, 사랑하며 예배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름의 더위가 가을바람이라는 선물을 미루고 미뤄 우리가 더 가을을 반가워할 수 있게끔 하는 동안, 영아부는 구약성서와 신약성서의 주요 인물들을 중심으로 성서 이야기를 가까이해보았습니다.

구약성서에서는 하나님께 부름을 입은 모세와 여호수아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된 욥과 요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다니엘의 이야기를 듣고 놀이로 느껴보았습니다. 신약성서에서는 병자들을 고치시고, 오천 명을 먹이신 이야기 그리고 삭개오를 부르신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죄로부터의 자유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함임을 느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뭇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활동과 감각으로 배워보았습니다.

한 뼉 더 자란 키처럼 영아부 아이들의 마음과 영 가운데 성서 이야기를 통해 느꼈던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자라나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커가는 영중새싹

여름성경학교 '믿음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그들의 믿음을 본받고자 '믿음으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유치부 여름성경학교를 진행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성경 이야기도 성경 인물의 이름도 조금 어려웠을지 몰라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알려주다 보니 여호수아, 갈렙, 가나안 땅, 언약궤 등의 단어들을 기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에 함께 한 유치부 선생님의 소감을 나눠봅니다!

김나을
선생님

이번 유치부 여름성경학교는 '믿음으로'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를 통해, 같은 상황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에 따라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 무서운 거인족이 보이기도 하고, 풍성한 과일과 동물들이 어우러진 평화로운 땅이 보이기도 하는 활동을 하며, 믿음의 시선으로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이들과 함께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 여름성경학교에서 빼놓을 수 없는 물놀이 시간도 있었는데, 그때만큼은 저도 아이들과 함께 동심으로 돌아가 신나게 웃고 장난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스타 등 다양한 재료로 '내가 상상하는 가나안 땅'을 꾸며보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아이들만의 시선으로 표현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가 아이들의 마음속에 작은 믿음의 씨앗으로 심겨 앞으로 계속해서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김혜원
선생님

2025 영중유치부, '믿음으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름성경학교를 진행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때로는 장난도 치고 웃으며 말씀 안에서 자라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동을 경험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느낀 바람이 있다면, 앞으로도 이 아이들이 지금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의 씨앗이 점점 자라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길 소망합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며 때로는 세상이 주는 유혹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서 용기와 지혜를 얻어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뮤지컬 관람 '누가 내 머리에 똥 썼어?'

유치부 친구들과 처음으로 문화생활을 즐기러 “누가 내 머리에 똥 썼어?”라는 제목의 어린이 뮤지컬을 관람했습니다. 새로운 시간에 함께했던 선생님들과 친구들의 소감을 들어봅시다!

박선숙
선생님

9월 13일(토), 유치부에서 “누가 내 머리에 똥 썼어?”라는 뮤지컬을 관람하였습니다. 12명의 유치부 어린이와 전도사님 선생님들이 함께하였습니다. 주일이 아닌 토요일에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만나는 아이들의 신난 얼굴에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는 제 마음속에서도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저희를 볼 때 기쁘시리라 믿습니다. 재미있는 음악과 독특한 소재로 아이들의 흥미를 자극하는 뮤지컬을 볼 때 아이들은 대답도 잘하고 많이 웃고, 때로는 무섭다고 선생님의 손을 꼭 잡는 순수하고 예쁜 모습이 있었습니다.





토요일에 뮤지컬을 보고 다음 날인 주일에 바로 만나니 더 반갑고 친밀해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교회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즐거운 경험을 통해 더욱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들로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김은미
선생님

예배 시간에만 모이던 아이들이 특별한 날을 만들어 함께 공연을 관람하며 유아들끼리 즐거워하고 유대감을 느끼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공연이 처음이라 두려워하는 어린아이들을 세심하게 보살펴 주시는 선생님들의 손길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고 다른 부서 사역자들도 함께 도와주시며 유치부 행사에 신경 써주시는 모습이 감사했습니다.

이지솔
어린이

너무 웃겼어요!

장이안
어린이

똥이 더러웠어요.

박유빈
어린이

재밌었어요. 동생이랑 같이 봤는데 동생이 집에서 자꾸 “누가 내 머리에 똥 썼어!”라고 말해요.

신소을
어린이

똥파리가 무서웠어요. 파리보면 생각날 것 같아요.

김윤슬
어린이

재밌었어요. 등장인물들이랑 하이파이브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03

유년부

‘믿음의 잎사귀가 되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고백

여름성경학교 ‘Be-Leaf’

올여름, 우리는 함께 ‘Be-Leaf’라는 이름 아래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그분 안에서 자라나는 ‘믿음의 잎사귀’가 되기를 소망하며 뜨거운 2일의 여정을 걸었습니다.

작은 손을 모아 기도하고, 입술로 찬양을 고백하며, 아이들은 말씀의 씨앗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눈 부신 햇살 아래에서 함께 웃고, 서툰 손길로 티셔츠를 꾸미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믿음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때로는 질서가 무너지기도 했고, 예상치 못한 상황들도 있었지만, 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붙드시고 하나 된 마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 ‘하나님과 나의 연결’이라는 주제 안에서 아이들 각자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기도 나무에 매달린 작은 소망들, 그 안에 담긴 진심이 하늘에 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이 수련회를 통해 아이들의 마음속에 심긴 믿음의 씨앗이 계속 자라나 열매 맺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아름다운 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시작하신 이 좋은 일을, 끝까지 완성이 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름성경학교 'Be-Leaf' 소감

김운민혁 선생님 ▶ 이번 유년부 여름성경학교를 통해 아이들과 함께하며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진행이 원활하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도 되었지만, 아이들의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걱정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여름성경학교에서 진행되는 예배와 기도를 통해 아이들과 하나 되어 주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섬김의 기쁨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윤유화 (3학년) ▶ 여름성경학교를 통해 내 안에 있는 씨앗을 발견한 것 같고 그 씨앗이 더 자라도록 예배를 더 열심히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김리원 (2학년) ▶ 나무에 기도 제목을 써서 매다는 게 기억에 남아요. 그 나무를 마지막 시간에 함께 꾸미는 활동이 재미있었어요.

이인서 (1학년) ▶ 여름성경학교에서 물놀이도 하고, 부채도 꾸미고, 티셔츠에 도장도 찍고 재미있었어요!



달란트 잔치, 심방

이번 여름, 유년부에서는 아이들이 가장 손꼽아 기다리던 달란트 잔치가 열렸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을 외우고, 서로를 돕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며 쌓은 달란트를 모아, 하나씩 선물을 고르는 아이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각자 받은 만큼의 달란트를 사용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경험은 아이들에게도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곧 2학기에도 또 한 번의 달란트 잔치가 기다리고 있어, 아이들의 기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유년부는 수련회 이후에도 아이들의 신앙이 일상에서 이어질 수 있도록 꾸준히 심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학교와 집, 그리고 생활 속에서 아이들을 만나 함께 웃고 이야기하며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오랜만에 얼굴을 본 친구도 있었고, 매주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친구는 일상 이야기를 들으며 서로의 삶을 격려했습니다. 이 시간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신앙이 삶의 현장에서 이어지고 자라는 따뜻한 연결의 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유년부는 아이들과 더 가까이, 그리고 더 깊이 함께 걷고자 합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가정과 학교, 친구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자연스럽게 스며들기를 소망합니다.

최지영 선생님

저는 1학년 여자아이들을 맡고 있는데, 유년부 예배를 함께 드리다 보면 아이마다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친구도 있고, 장난만 치는 것 같지만 예배 후에 진지한 질문을 던지는 친구도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는 모습이라 참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또한, 아이들과 함께 바깥에서 밥을 먹으며 심방 하는 시간은, 평소에 알기 어려운 아이들의 마음을 조금 더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됩니다. 교회에 친구가 없어 낯설어하던 아이들도, 이런 시간을 통해 서로 가까워지고 예배에 더 잘 참여하게 되어 기쁩니다.

장진우 선생님

저는 3학년 남자아이들을 맡고 있습니다. 심방을 하며 아이들과 깊이 이야기하다 보면, 장난기 많은 겉 모습 뒤에 순수한 마음과 작은 고민이 보입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성경학교에서 서로 도우며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신앙 안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참 대견했습니다. 처음엔 갑작스럽게 시작했지만, 오히려 제가 아이들을 통해 인내와 사랑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며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다시 서다!

여름수련회 '패밀리! - 하나님의 가족'

여름의 한가운데, 뜨거운 햇살 아래 영등포중앙교회 초등부 아이들은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바로 '패밀리! -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주제로 열린 여름수련회에 참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번 수련회의 주제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더 이상 낯선 이가 아닌, 한 가족임을 배우고자 강화 웨슬리 수도원으로 떠났습니다. 2박 3일의 시간 동안 초등부는 웃고, 놀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가족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분주한 일상에서 잠시 멈추어 서로의 이름을 부르고 손을 잡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배우는 은혜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화목한 분위기 속에서 팀별 코스게임과 물놀이가 진행되었습니다. 땀과 물이 뒤섞인 현장 속에서 아이들은 함께 뛰고 웃으며, '가족은 함께할 때 더욱 즐겁다!'라는 사실을 몸으로 배웠습니다. 활동이 끝난 뒤에는 조별 모임을 통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족으로 부르셨어요." 아이들의 입술에서 나온 이 고백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서로의 이야기





를 듣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진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정체성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저녁 집회는 이번 수련회의 가장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찬양과 말씀, 그리고 기도로 이어진 예배 가운데 아이들은 조용히 눈을 감고, 서로의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누군가는 친구를 위해, 누군가는 가족을 위해, 또 누군가는 아직 교회에 나오지 않는 친구를 위해 마음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그 시간, 아이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담겨 있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심을 받은 기쁨’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안에 새로운 사랑의 씨앗을 심고 계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찬양 파티의 시간, 아이들은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예배하는 그 순간,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짧은 2박 3일의 여정이었지만, 그 안에는 사랑과 웃음, 말씀과 기도, 위로와 결단이 가득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아이들은 가족의 의미를 다시 배웠습니다. ‘가족이란 함께하는 사람’, ‘가족이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단순하지만, 깊은 진리를 몸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초등부는 수련회에서 배운 ‘패밀리’의 정신을 각자의 일상에서도 이어가고자 합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친구들과 사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작은 가족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하며, 마지막으로 초등부 수련회를 함께 한 친구들의 소감입니다.





박다희(6학년) 수련회 2박3일 동안 즐거운 프로그램들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 맛있는 밥과 사랑을 나눠주셔서 감사했어요. 함께 재밌게 놀아준 친구들 고맙고, 이번이 마지막 수련회라는 점이 아쉽지만 재밌게 놀아서 후회 없었어요. 수련회를 통해 배운 것처럼 초등부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될게요.

박창건(5학년) 초등부 친구들에게 이렇게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 되어 가족 같은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하며 하나님을 믿고 사랑합시다. 모두 축복합니다. 아멘!”

박하연(6학년) 처음으로 2박3일 동안 수련회에 갔었는데 생각보다 더 좋고 더 재밌어서 놀랐어요. 이번이 마지막 수련회인데 가족처럼 함께 어울려 놀던 시간을 기억하며 청소년부 가서도 교회 잘 다니고 하나님 말씀 전하며 살게요. 너무너무 감사해용.

이재운(6학년) 즐거운 수련회를 보내서 정말 좋았어요. 친구들과 함께 먹고, 자고, 놀면서 더욱 친근해지는 시간이었고, 예배를 통해 마음도 가까워지는 시간이었어요. 앞으로 우리 초등부 가족 공동체가 화목하게 지내면 좋겠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초등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최서진(5학년) 저희가 여름수련회 주제인 ‘패밀리’를 통해 하나님의 가족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특히, 마니또를 하며 서로 더 친해질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더욱 사랑하며 지내도록 합시다!

한시운(6학년) 이번 여름수련회에서 재밌는 활동이 많았어요. 수영장에서 함께 놀고, 라면 먹는 것이 기억에 남아요. 또, 미션을 통해 얻은 재료로 부대찌개를 끓여 먹은 것도 좋았어요. 무엇보다 활동 중에서 서로 도와주고, 응원해 주는 친구들이 있어서 고맙웠어요. 수련회를 통해 깨닫게 된 우리가 서로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라는 점을 잊지 않을게요.



멈춤 속에 발견한 하나님의 시선

여름수련회 'PAUSE'

이번 여름, 청소년부는 'PAUSE(멈춤)'라는 주제로 특별한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주제 성구는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였습니다. 분주한 일상과 학업 속에서 쉼 없이 달려가던 우리 모두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이번 수련회의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수련회 첫날, 다양한 레크리에이션과 팀별 활동을 통해 닫힌 마음의 문을 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웃음과 환호가 가득한 시간 속에서, 서로를 향한 경계심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공동체로서의 따뜻함이 스며들었습니다. 이어진 말씀과 찬양의 시간에는 각자의 삶 속에서 바쁘게 달려오느라 놓치고 있었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에 대한 깊은 묵상이 이어졌습니다.

둘째 날에는 야외 코스게임을 통해 주제의 의미를 더욱 생생하게 경험했습니다. 코스를 따라가며 주어지는 다양한 미션과 장애물은 마치 우리의 인생 여정과도 같았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난관이 나타났지만, 멈춰서 함께 방향을 점검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임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자신에게 쓰는 편지로 다시 일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결단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멈춤'은 단순한 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새롭게 바라보고,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우리 청소년들은 ‘더 빨리’가 아닌 ‘더 깊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 각자의 삶에 선한 뜻을 두고 계신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며, 이제는 그분의 시선으로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며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바쁜 세상 속에서도 잠시 멈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PAUSE’의 시간이 앞으로의 신앙 여정에도 계속 이어지길 기도합니다.

학교 선교사 파송 예배 ‘너희는 빛이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을 주제 성구로, 청소년부는 지난 8월 24일 특별한 ‘학교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번 예배는 각자가 속한 학교에서 복음을 전하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겠다는 믿음의 사명을 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예배는 경건한 찬양과 기도로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의 한가운데서 신앙을 지켜낸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임을 알기에, 학생들의 마음에는 긴장과 기대가 함께 자리했습니다. 이어진 말씀 시간에는 우리가 단순히 학생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빛의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학교는 단지 공부를 하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선교지임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파송 예배에는 케냐로 단기선교를 다녀온 김주원 선생님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낯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며 경험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을 생생하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학생들은 ‘선교’가 먼 나라의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일이 아니라, 바로 나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를 사랑하고, 복음의 빛을 비추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 나라의 선교라는 깨달음은 많은 학생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파송의 시간에는 학생들이 한 명 한 명씩 나와서, 학교로 돌아가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겠다는 결단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예배당 안에는 진지하고 뜨거운 헌신의 분위기가 가득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했던 이사야의 고백처럼, 우리 청소년들도 각자의 학교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파송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번 파송 예배를 통해 학생들은 ‘빛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새롭게 세우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품고 세상 속으로 나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앞으로의 학교생활 속에서 이들이 세상의 가치에 휩쓸리지 않고, 오히려 빛을 비추며 복음을 전하는 작은 선교사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든든한 동역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일, 사랑, 영성, 우리의 매일을 채우다

여름수련회 소감1 - 유지원 청년

이번 수련회는 저에게 청지기 마음과 공동체의 즐거움을 일깨운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참여한 영중 젊은이교회 수련회여서 궁금한 마음이 있었고, 주제인 일, 사랑, 영성이 현실을 살아가는 제게 중요한 내용이었어서 기대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일, 사랑, 영성에 대한 강의를 들은 후, '나는 주님의 청지기'라는 사실이 가장 크게 와닿았습니다. 나에게 주인이 있고 주인은 나에게 일을 맡겼고, 주인은 반드시 돌아와서 결산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이 맡기신 것에 성실하고, 주님이 맡기신 사람을 사랑으로 돌보는 신실한 청지기로 살아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이어서, 결국 내 삶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자만할 것도 낙담할 것도 없습니다. 물론 여전히 '주님, 그래도 이젠 제 인생이잖아요.'라고 투정 부릴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다시 청지기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청지기로 살아가기 위해 사랑하는 주님 앞에 매일 나아가, 내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묻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번 수련회는 조 모임이 많았는데, 함께 대화하는 시간이 참 즐거웠습니다. 레크레이션, 카페에서 대화, 40문 40답 나눔 등 함께 조 활동을 하면서 처음 대화해 본 사람들 같지 않고 원래 알고 지낸 친구처럼 편안하다는 느낌을 받아 매우 신기했습니다. 자신의 속마음과 생각을 스스럼없이 나누고, 진심으로 걱정하고, 서로를 알아가는 모든 대화속에서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사역보다 사람, 사람보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하려 하는데, 특별히 이번 수련회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는 기쁨을 온전히 누린 시간이었습니다.

간증문을 작성하면서,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청지기 마음'과 지금도 누리고 있는 '함께 하는 즐거움'을 다시 되새깁니다. 수련회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필요한 말씀과 은혜와 교제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름수련회 소감2 - 강나연 청년

이번 젊은이교회 여름수련회 주제는 ‘일, 사랑, 영성’으로, 청년이자 직장인인 저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충만하게 채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제 마음의 사랑이 점점 메말라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타인을 사랑으로 대하지 않는 제 마음의 크기가 작은 것 같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모습이 부족하게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서는 사랑의 실천은 내 안의 작은 사랑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나를 통해 흘려보내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수련회 첫날, ‘복음의 전환’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이 스며들듯이, 자연스럽게 전하는 경험과 주님께서 보여주신 결과에 대해 공유해 주셨습니다. 부담스럽고, 어렵게 느껴졌던 복음의 전환, 즉, 전도가 작은 실천과 한 걸음으로 시작될 수 있음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의 통로 역할도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먼저 다가가는 용기, 다른 이를 위한 관심과 기도가 모여 하나님의 사랑을 제 삶을 통해 증거 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또한 이번 수련회는 다른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조별 모임 시간, 집회 후 토크 콘서트와 같이 대화의 시간을 보내다 보니 많은 청년이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 또는 학업과 신앙생활의 균형, 내 삶의 중심을 주님께 두기 위한 노력 등에 대해 청년들과 함께 얘기하고 생각을 나누면서 공동체 안에 은혜가 더해졌던 것 같습니다.

한 책에서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고 큰 영향력을 가지는지 생각해 보게 된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의지, 그렇게 새로운 화음을 만들고 함께 살아가고 싶다는 마음. 오늘 하루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작은 실천을 해야겠다.’라는 문장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고 싶다는 마음으로 작은 실천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자 합니다. 끝으로 수련회를 위한 수고와 헌신 그리고 기도에 감사드리며 영등포중앙교회 성도님 모두 사랑이 가득한 오늘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추석 특별행사 '제2 미니게임천국'

젊은이교회가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아, 작년에 이어 '미니게임천국 2탄'을 진행했습니다. 미니게임천국은 청년들이 팀을 이루어 다양한 게임과 간식을 즐기며 함께 웃고 교제하는 특별한 행사입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한층 더 풍성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준비했습니다.

공기놀이, 딱지치기 등 전통 놀이부터, 칩을 날려 점수를 겨루는 칩 켈링, 그리고 탁구공을 튀겨 계란판에 넣어 진행한 계란판 오목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게임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청년들은 순식간에 동심으로 돌아가 웃음과 함성으로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게임마다 흥미진진한 경쟁이 펼쳐졌지만, 승부보다 함께 즐기는 분위기 속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따뜻한 장면들이 이어졌습니다. 추석 연휴로 인해 함께하지 못한 청년들도 있었지만, 참석한 이들은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순수한 웃음을 터뜨리며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행사 중간에는 준비된 간식과 함께 담소를 나누며 한 해 동안의 감사와 은혜를 돌아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올해도 젊은이교회 공동체의 웃음과 사랑이 가득한 명절 행사로 기억될 미니게임천국. 하나님 안에서 세대가 함께 웃고, 마음이 하나 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미니게임 천국 코멘트

김현정 자매

추석 명절맞이 미니게임의 우승 속으로서 숙원들과 함께 재밌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릴 때 공기놀이를 열심히 했던 게 빛을 봤네요. 열심히 준비해 주신 사역자분들께도 감사 드립니다!

이지원 형제

추석을 맞아 교회에서 함께 게임을 하며 즐겁고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웃음이 가득한 가운데 서로의 마음이 더 가까워지고 격려하며 하나 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디펜딩 챔피언 31세 차영준 형제

게임 앞에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영종게시판

YEONGDEUNGPO CENTRAL METHODIST CHURCH



웨슬리 회심기념 영등포지방 연합성회

5월 26-28일(월-수), 신풍감리교회에서 '웨슬리에 게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웨슬리 회심기념 집회가 있었다. 특별히 28일 집회에서는 우리 교회 연합성가대가 특송을 준비하여 드렸다.



주차관제시스템 안내

교회 주차장 출입이 차량번호 인식 자동주차관제 시스템으로 변경되었다. 4월 20일부터 차량 신청서를 작성하였고 6월 2일(월)부터 주차관제시스템이 시행되었다. 입구는 입, 출차 둘 다 가능하며 출구는 출차만 가능하다.



영중문고 도서대출 안내

6월 15일(주일)부터 영중문고 도서대출이 재개되었다. 영중문고는 교육관 6층 엠부카페에 위치하며, 전교인 필독도서를 포함하여 다양한 책을 대여받을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란다.



맥추감사절 세례입교식

7월 6일(주일), 맥추감사절을 맞이하여 김태균 성도의 세례입교식이 진행되었다. 세례와 입교를 축하드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란다.



케냐 단기선교 후원 바자회 및 팔랑카

6월 29일과 7월 6일(주일) 2주간에 걸쳐 케냐 단기선교 후원을 위한 바자회가 열렸다. 여선교회와 케냐 단기선교팀이 주관한 본 행사는 성도들 뿐 아니라 교회학교 어린이들까지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였다. 또한 팔랑카(Palanca, 도움의 손길)를 통해 필요한 물품을 후원해 주셨는데 선교를 위해 도움을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여선교회 영등포지방연합회 계삭회

7월 15일(목), 우리 교회에서 영등포지방연합회 계삭회를 진행하였다. 영등포지방 여선교회원들이 예배와 나눔의 시간을 통해 하나 되는 귀한 시간이었다.



하반기 영중장학금 수여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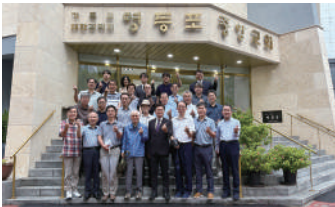
8월 17일(주일), 하반기 장학생 장학금 수여식이 있었다. 교회와 가정과 학교에서 여러모로 모범이 되는 장학생이 되길 바란다.

*장학생 명단 : 유년부(김윤재, 성이준, 윤예서, 윤유화), 청소년부(권서현, 방태민), 대학부(김도유, 이예주, 장서진)



조찬기도회 & 야외 연합속회

8월 30일(토), 아침 7시 베엘성전에서 남선교회원들이 모여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10월 24일(금)에는 웨슬리수도원에서 연합속회가 진행되었고 강화전쟁박물관도 함께 관람했다.



▲ 남선교회 조찬기도회



▲ 야외연합속회

영중동아리 소개

올해부터 성도들의 교제를 위해 여러 동아리가 활동 중이며 새롭게 오픈을 준비 중인 동아리도 있다. 관심 있는 동아리에 신청하여 은혜의 교제를 나누길 바란다.

* 활동 중 : 오카리나 동아리(매주 화), 뜨개질 동아리(매주 금), 요리 봉사 동아리(매달 마지막 주 토), 뮤지컬 동아리(매주 주일)

* 준비 중 : 탁구 동아리, 예술감상 동아리, 피클볼 동아리



남성, 여성 중창단 창단

남성, 마르투스 중창단

여기까지 도우신 에벤에셀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 3월 제5남선교회(요셉) 속회 때, 남성중창단을 조직하여 교회 행사 및 필요시 쓰임 받는 준비된 상비군의 역할을 하자는 의견이 있어 회원 모두 결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문화부에 요청하고 목사님의 재가를 얻어 대원 11명으로 구성된 '마르투스(헬라어로 순교자) 중창단'이 창단되었습니다(지휘 : 김주한 권사). 부족하지만 찬양에 대한 열정으로 하나가 되어 기쁨으로 헌신하고자 합니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할 것을 소망하며 열심히 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깊은 애정과 기도,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영등포중앙교회가 찬양과 열정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Soli Deo Gloria”

(글 : 김주한 권사)



여성, 에이레네 중창단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안에서 교제하면서, 주님 주시는 평안함을 깨달아 행복한 중년을 향해 나아가는 자매들이 모여 '에이레네(샬롬에 해당하는 헬라어) 중창단'을 창단하게 되었습니다. (지휘 : 김현경 권사)

14~16부 여선교회원들을 중심으로 한 달에 두 번 2·4주 주일 오후에 모여 연습하고 있습니다. 함께 찬양드리며 위로받고 교제하며 삶을 나누는 작은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시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문의 : 김난경 목사 또는 교회사무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글 : 김수연 권사)

교우소식

YEONGDEUNGPO CENTRAL METHODIST CHURCH



새 교우

안준호 원로장로(남)	2부 남선
이순실 권사(여)	6부 여선
장미영 성도(여)	16부 여선
김진향 권사(여)	5부 여선
최은정 성도(여)	16부 여선
김기근 성도(남)	7부 남선
김권보 성도(남)	청장년
김윤희 성도(여)	16부 여선
고마운 성도(남)	청장년
김재연 성도(여)	16부 여선
임예린 성도(여)	젊은이
최은겸 성도(여)	16부 여선
정성희 권사(여)	10부 여선
최성일 성도(남)	6부 남선
김현정 성도(여)	12부 여선
최다빈 성도(여)	청년
최민욱 성도(남)	청년
안경열 성도(남)	6부 남선
신은하 성도(남)	15부 여선
안준서 성도(남)	청년
이은복 성도(남)	청장년
성나라 성도(여)	16부 여선
김윤지 성도(여)	청년
이희순 집사(여)	3부 여선
심은록 성도(여)	9부 여선

이 사

박광영 장로, 함은영 권사	인천 부평구
김연식, 이진용 권사	영등포구 신길동

출 산

김희성, 피인영 성도 득녀 (김성범 장로, 김선이 권사 득손)	5/13
지성현, 이영순 권사 득외손	6/24

장 례

김창국 권사 소천(전문자 권사 남편상)	9/27
-----------------------	------

감사

이동연, 이동욱, 이범석 권사, 이동주 집사	애찬섬김(부모님 추모)
박규현 장로, 김선숙 권사	애찬섬김(범사 감사)
현정숙 권사	애찬섬김(범사 감사)
래미안1속	애찬섬김(범사 감사)
박덕신 장로, 김인숙 권사	애찬섬김(범사 감사)
제1여선교회	애찬섬김(범사 감사)
구영경 권사	애찬섬김(범사 감사)
윤철수, 박수년 권사	애찬섬김(범사 감사)
김백양 권사, 이경순 장로	애찬섬김(범사 감사)
맹진구 장로, 김향진 권사	애찬섬김(범사 감사)
박성희, 황영옥 권사	애찬섬김(범사 감사)
한애숙 권사, 신인근, 권지선 집사	애찬섬김(범사 감사)
최태수 담임목사, 안미경 사모	애찬섬김(범사 감사)
김범준, 김미진 권사	애찬섬김 (김광시 장로 1주기 추모)
윤동일 집사	애찬섬김 (조정화 집사 1주기 추모)
곽지노, 이기영 권사	애찬섬김(범사 감사)
장성욱, 유은하 성도	애찬섬김(자녀결혼 감사)
고주철, 이은경 집사	애찬섬김(아들결혼 감사)
김세진, 이해경 권사	애찬섬김(결혼기념 감사)
김세웅 권사	애찬섬김 (중소기업 경영혁신대전 장관상 수상 감사)
정창영 권사	애찬섬김(정진수 장로 추모)
이윤조, 최혜윤 집사	애찬섬김(자녀생일 감사)
정한신, 한윤정 권사	애찬섬김(정광조 권사 추모)
최은겸 성도	떡 준비(범사 감사)
박규현 장로, 김선숙 권사	2부예배, 미스바 수요기도회 싱어팀 단복 준비
황용순, 장지영 권사	애찬섬김(황용성 목사 추모)
홍천수 장로, 김용순 권사	애찬섬김(범사 감사)
사화경, 사지혜 권사, 사유진 집사	애찬섬김(아버님 추모)
조항연 장로, 임재신 권사	애찬섬김(범사 감사)



독서기간 | 2026년 상반기



전교인 필독 독서운동

『거룩한 돌파구』한홍 지음 / 규장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사방이 막힌 것 같고 빠져나갈 길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길을 내시고 반전의 기회를 주신다. 역사와 일상의 배후에 계셔서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섭리의 신비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삶뿐만 아니라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이 책은 에스더서를 통해 유다 출신의 고아 소녀였던 에스더가 대제국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어 민족의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쓰임 받는 모습을 살펴봄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신비한 방법으로 그분의 백성을 지키시며 빠져나갈 길을 마련해주시는 사실을 전한다. 하나님의 그 섭리를 신뢰하며 “죽으면 죽으리이다”의 각오로 민족을 위해 위험을 무릅썼던 에스더처럼 우리가 그분의 섭리를 온전히 믿고 따를 때, 그분은 빠져나갈 곳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우리를 위한 거룩한 돌파구를 마련해주실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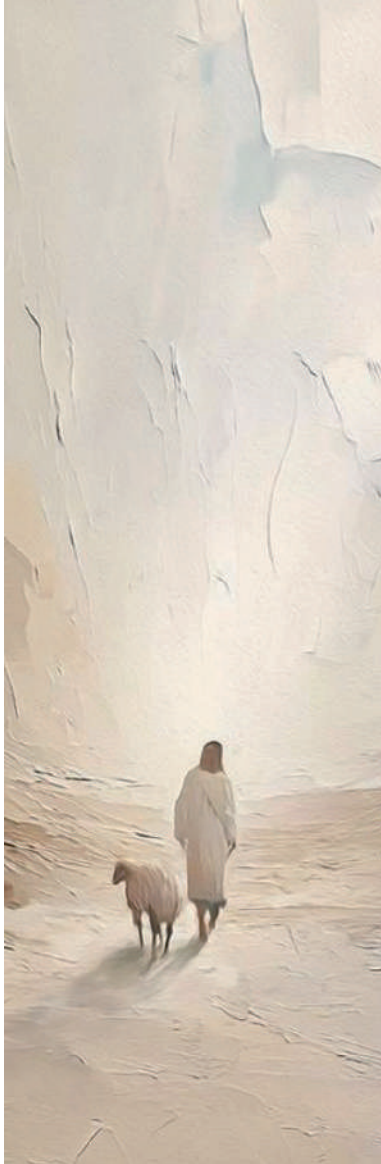
『하나님을 기뻐하라』존 파이퍼 지음 / 생명의 말씀사

하나님을 믿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는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을 포기하고 종교 행위에 의무적으로 얽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새로운 차원의 기쁨과 행복에 눈이 열리고 거기서 꼭 짜인 만족과 위로와 충만함을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전까지 그 영혼의 갈망 살아 주었던 세상의 기쁨이 시시해지고, 이전에는 즐겁게 여겨지지 않았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화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참된 기쁨과 행복을 등지고 그 그림자를 바라보는 데서 만족하고 만다. 이 책은 하나님의 주권, 회심, 예배, 사랑, 성경, 기도, 돈, 결혼, 선교, 고난 등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왜 본질이며 핵심인지 설명한다. 밀 빠진 독과 같은 영혼의 허기를 잠깐의 즐거움으로 채우고 채우고 채우다 지쳤는가? 그렇다면 영원한 행복의 생수가 흘러넘치는 그리스도 안으로 당신의 영혼을 집어 던지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기독교대한감리회

영등포중앙교회

영중소식 2025 하반기

발행처 영등포중앙교회

발행인 최태수

편집인 조영주 신승민

편집위원

김성일 김선정 김성희b 권지선 박은정 오세빛

제작 주심기획